



# 時計塔

SIGETOP



2021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8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安祐成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變 徐仁錫  
편집인: 徐倫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장 행복하셨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는? 임상을 하셨다면 전공과목은?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된 경험은 언제이었던가요?
6. 의대학창시절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말씀해주세요.
7. 다시 태어나셔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8.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에 얻은 경험 중에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소 자량이 되어도 좋습니다.
9.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소개해주세요. 혹시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언제 끊으셨습니까?
10.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때에 무엇을 의지하셨나요? 편집위원회에나, 의과대학, 동창회나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 노인규 (63) 선배님



1. 졸업 후 군 복무는 의무적이고 나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해군에 갔습니다. 해군으로 진해 병원과 해병대로 월남 복무 후 미국에는 1967년 2월에 처와 함께 \$200 갖고 왔습니다.

2. 월남전 때에 우리 부대의 의료팀이 전쟁을 안 하는 동안에는 대민 의료진료 사업에 나갔는데 그 도시의 병원에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Forcep Delivery를 하는 Midwife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기쁜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 중이라 가난하게 살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정시대에는 국민학교(의정부 일본 국민학교), 영양실조, 추운 겨울에 매일 아침 군대식 조화, 한국말을 하면 안됐고, 잘못하면 매질을 당했고, 해방이 되니 새로운 정부가 서는가 했더니 또 정당 싸움, 6.25사변 등등. 어찌하여 한국은 항상 싸움들인가? 내가 본 그 사변의 민간인 사상자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망이 세계 제1위로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자비심

悲心입니다.

4. 산부인과 產婦人科
5. 우선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6. 의대 본과 때 시계탑 교실에서 강의 듣고 점심때면 우리 반의 점뿌 야구팀이 건물 옆의 운동장에 모여서 점심을 먹고 놀던 맨손 야구 게임이 참으로 즐거운 추억입니다. 그때 놀던 그중의 한 친구(박XX)는 보스턴에 와서 마취과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병으로 갑자기 떠난 것을 듣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7.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겠습니다.
8. 나는 내 자식에 대하여 성공적이 못되기 때문에 권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생각은 자식들 스스로 고생을 해봐야 그들이 자기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과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주고 돈을 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9. 몸에 해가 된다고 알려진 것은 하지 말 것. 건강에 좋은 운동, 취미생활, 그것도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찬성. 물론 술과 담배는 안 합니다.
10. 주로 집에 있고, 독서, 음악을 듣는 것, 여행도 못하고 요즈음 여기저기 슬픈 소식만 들리네요. Walk Exercise, wearing Mask!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였고 2번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work and recently I applied for the job, but I was not accepted.

### 이중오 (64) 선배님



1. 1968년 2월 4일에 당시의 대세를 따라 저희 부부가 400불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2. 고등학교 은사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3. 어릴 때부터 누나들이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지요.  
before becoming a specialist, you have to be a confident physician, before becoming a physician, you have to be a decent human being.  
의사이기 전에 감수성 있고 인간미 있는 사람.

4. "Suicide by fire as a political protest"를 제일 처음 국제 학회지에 발표한 후부터 자연히 사회정신의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민족성 문제에 대한 공부를 좀 했지요.

5. Common sense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역시 인턴 시절이었지요.
- 1975년 의과대학 학생들이 the best teacher of the year로 뽑아주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다.
6. 해남에 무의촌 실습과 3학년 때 이천에 콜레라 방역 실습 나갔던 일.
7. TV program의 producer가 어떨까?
8. 칼랄 자브란의 다음말을 다시 새겨 봅니다.

You may give them your love but not your thoughts. For they have their own thoughts. You may house their bodies but not their souls, For their souls dwell in the house of tomorrow, which you cannot visit, not even in your dreams.

9. 집 주위 트레일을 걷는 정도이지요. 주로 TV에 매어있고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담배는 1972년도에 끊었습니다.
10. 컴퓨터와 TV에 의지했지요. 저의 나이가 되면 모든 게 평준화가

### 허선행 (64) 선배님



1. 나와 처는 1969년 6월 28일 미국을 향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 돈 (dollar) 구하기가 정부 규제도 쉽지 않았고 외국에 갈 때는 그 액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200달러를 힘들게 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장모님이 큰 지폐 몇 장을 옷 갈피에 숨겨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2. 본과 1년생과 어느 여고 1년생. 그녀는 내가 과외 공부 시키던 학생의 누나였는데, 1년이 지나면서 차차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드물게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어주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와이만의 은파 (銀波, silvery waves by A.P. Wyman) 에는 일가견을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이 나에게서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 없이 몇 년이 지나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여대생이 됐고 나는 막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할 무렵에 우리는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인턴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게 되니까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었으나 이보다 어려운 난관이 우리가 넘어야 할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나만큼은 몰랐습니다.

빈농의 아들인 의대생이 대 재벌의 따님을 신부로 맞는다라는 것은 우리 집 부모의 승낙보다는 그녀의 부모의 허락받기가 어려울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가정과 가문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으나, 다행히도 친오빠가 같은 대학에서 같은 해에 졸업한 육군 법무관이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4촌 오빠(경제기획원 장관) 부인의 공식적인 중매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아 이모(가수 남진의 모친)와의 대면이 있는 후 그녀 아버님 앞에서 큰 인사를 올리면서 결혼 허락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수는 없지만 아마도 첫아이를 순산한 처와 나의 장손을 보던 때가 아직도..

3. 사실 나는 공업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기술자라도 되어 보자고 했지만 큰 형님의 도움으로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역시 공과 대학과 법과 대학이 우선순위에 속해 있었으나 주위 분들의 권고로 의예과를 지망하게 됩니다. 건강만은 평소에 드린 공이 남게 되지요,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되었습니다.

Hippocrates의 선서라기보다는 나는 나대로의 의사다운 의사가 되자고 다짐해 왔습니다. 의술, 인술, 예술의 3단계에서 의사로서의 예술의 경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경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4. Radiation Oncology
5. 내 일생 제일 힘들었던 일은 내가 중학교 입학 국가시험(1952년)을 치르던 날 나의 학질이 재발되어 열과 함께 온몸의 진동(tremor)의 고통 속에 시험은 치렀지만 그 성적 또한 밑 바닥이었던 수모였고, 가장 보람된 경험은 의예과에 합격하도록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한 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에 운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 인내 속에는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가 꼭 따라야겠지요.

6. 동창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나는 일을 해야 되기에 다른 핑계 대고 못 갔던 일.
7. 아마도, 의사보다는 토목, 건축에 쏠릴 것 같습니다.
8.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학군이 좋은 동네나 사립학교를 골라 보세요. 시험과 interview를 통해 입학이 허용되는 사립 고등학교도 적극 추천하고 싶지만 장학금 받기가 쉽지 않고 학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9.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합시다. 많이 한다고, 또 강력하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잠이 많아서 잃고 손해 본 것도 많았는데 이제 와 보니 내 건강을 지금껏 버티어 준 제일 큰 요소라고 봅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도 평균 7-8시간 잡니다. 잠 잘 자는 것도 5복 중의 하나가 되어야겠지요(그러면 6복 중의 하나). 그러하기에 나의 건강 비법은 잠 많이 아니면 잘 자고 소식(小食)에 물론 담배는 원래 안 피웠고 저녁이면 wine 한잔 또는 cocktail 한 잔입니다.

10. 그렇지 않았어도, 삼식 새끼(bastard)였었는데, 힘들었지요. 그래도 6.25, 9.28을 겪어본 분들한테는 비교가 안되지요. 그 바람에 알코올 중독자 될 뻔했지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땅도 파고, 잔디에 물도 골고루 뿌려도 보고 사슴 똥도 열심히 치워 봤지만 추운 계절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여행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는 기쁨도 갖추면 더욱 좋겠지요.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황규정 (65) 선배님



1. 1965년 의대 졸업 후 그 당시 마치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미국행 행렬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군복무 후 미국행을 하느냐 미국 갔다 와서 군복무를 하느냐의 기로에서 심사숙고 끝에 전자를 택하고 해군에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3년 복무 후 1968년 6월 말쯤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도착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허가하는 금액인 백 달러 이었습니다.

2. 막냇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인연으로 아주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키워가며 1968년 6월 출국하기 전에 결혼식 같은 약혼식을 했으니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은 연분인가 봅니다. 학업이 끝나지 않은 아내를 한국에 두고 나 혼자 먼저 미국에 왔고 아내는 대학 졸업 후 그해 12월 말쯤에 미국에 와서 1969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우선 아내를 만난 것은 내 생애에 가장 큰 행운이었고 두 아이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었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3. 의사가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다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도전할만한 직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늘 update 된 의학 지식과 의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덕목은 환자를 자기 가족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4.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St. John Hospital에서 인턴(1968-69) 후 같은 도시에 있는 Wayne State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69-73)을 마치고 private practice를 택하여 이곳 Lake Huron 가에 위치한 Port Huron이라는 도시에서 1973년 7월 1일에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42년 개업 끝에 2015년에 은퇴하였고 마지막 14년은 부인과만 했습니다. 대과 없이 '믿음을 주는 의사'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기울였던 42년의 나의 의업 인생에 대체로 만족할만 다고 자부합니다.

5. 어려운 명제인데 내 짧은 생각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나지 않고 비교적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큰 실패나 곤경을 당한 적이 아직은 없는데 만약 닥친다 해도 금방 인정하고 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보람되었던 경험은 반세기를 넘어 살아온 미국 생활에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외지 생활로 부모님께 끼쳐드린 불효로 인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려고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처음 고국 방문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103세, 2010)까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신 두 해 빼고 매년 가을에 3주 반 동안 귀국해 어머니를 모셨던 일들입니다. 따져보면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6. 졸업한 지 56년이 되는 아득한 옛일을 더듬어 봐야 하는데 역시 우리들을 가르치셨던 은사님들이 생각 나네요. 안병욱(철학), 명주완(정신과), 이성수(병리학) 제 교수님들의 명강의들을 잊을 수 없고 우리 동기에는 유별나게 교수님들 자녀들이 많아(기용숙, 박충집, 이성호, 김석환 제 교수님들) 수업 듣는데 장

단점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도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기용숙 교수님 밑에서 아무도 낙제 없이 지난 것은 그 아드님의 덕이라고 농담들 했었습니다.

7. 아마도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배정받을 DNA에 따라 많이 달라졌지요.

8. 오죽하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골프와 애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애들로 하여금 결정케 하고 그것을 support 해 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실현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깐요. 꼭 애들로 하여금 따라 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강요보다는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9. 특별히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은 그저 하루 만보 이상 걸으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65세까지는 jogging을 하루 3.5마일 정도쯤 규칙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걷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는 시즌(4월~10월)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치고 있는데 아직은 18홀을 pull-cart를 끌고 걸어서 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비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듯이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용변을 하는 습관을 들여 꾸준히 실천했고 아침 기상 후 한 15여 분간 베드 위에서 내가 만든 작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아마추어 실력의 글쓰기(여행기, 수필, 시), 여행 등이며 열렬한 sport fan의 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이 한 여행 중에서 하이лай트로 두 개 소개하면 아들이 우리 내외 70 되던 해에 계획에서부터 운전 등 여행 가이드 노트를 했던 여행입니다. 나 때는 2주 반의 알래스카 여행이었고 아내 70살 때는 하와이-호주-뉴질랜드 여행이었습니다. 저도 바쁜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실행했던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스포츠의 열렬한 fan으로 1984년 월드시리즈(Detroit Tigers 우승),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2002년 축구 월드컵 등 가족들과 함께 참관 했으며 디트로이트에 있는 Redwings, Tigers, Pistons 등이 World Championship games에 참관했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극낭자들이 휩쓸고 있는 LPGA, 손흥민 선수가 활동하는 EPL 경기에 폭 빠져 그 경기 상황 결과를 골라서 우리 의대 websites(snuma.net/xe)에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담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생 때와 군대 있을 때 가끔씩 피웠는데 끊은지 50년이 훨씬 넘었네요.

10. 워낙 나대지 않는 성격이라 집에 꼭 박혀있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나 어린 손주들을 facetime으로만 접할 수 있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길어진다 해도 결과적으로 현대 과학이 승리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윤석 시계탑 편집장님을 비롯 제 편집위원님들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계탑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동창회 신문으로 동창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러우며 Keep up the good work! 말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기고

미주동창회의 '퀘렌시아'를 꿈꾸며

신 응 남(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장)



인간은 여느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서고 두 발로 걷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 걷기 시작한다. 비로소 자기다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행위이다. 이렇게 스스로 바로 서는 이 행위를 자립(自立)이라고 한다. 두 발로 땅에 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독립적일 때 그 존재가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편안하며 안주하고 싶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두려운 결단은 대단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익숙한 아버지의 집 본향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40여 년 전 자의든 타의든 관계없이 우리의 본향을 떠나 이곳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 왔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 하여 모진 광야생활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꿈꾸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 역사를 써 갔듯이 말이다. 이제 우리가 보낸 미지의 신대륙 땅에서의 40년 광야의 생활을 깨끗하게 견뎌내 마침내 이 미국 신대륙에서 든든한 뿌리를 내렸다.

동창회장의 임기를 시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나의 기도 속에 지난 1년 반 동안 제일 먼저 미국 곳곳에 흩어져 동창회와 연결을 맺지 않고 지내는 동문들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18개월의 '민수기' 작업을 통해 1700여 명의 누락된 동문을 찾아내 동창회 명부에 올림으로서 인수를 받을 때의 동문수 5700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7400명의 동문의 명단을 확보하는 새 역사를 써냈다. 아울러 3년 전인 2017년 동창회장 출마 때 나의 출사표의 한 공약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고향이 될 서울대학교 클럽을 세우는 것이었다.

해밍웨이가 오랫동안 자주 찾았다는

스페인의 투우장에 가면 투우장 한구석에 싸우다 지친 투우들이 기력을 회복하는 장소가 있다. 그곳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그 작은 공간에서 싸우고 지친 투우들이 다시 다가올 새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 지친 몸을 추스리며 새 도전을 준비하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 미주동창회도 이곳 미국에서 우리들의 안식처인 '퀘렌시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꿈은 요원해 보인다.

한편 우리의 본향 모교는 한국 경제발전엔 힘을 입어,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관악에 지식의 산실 웅장한 캠퍼스를 세웠다. 또한 서울동창회는, 10여 년 전 동창회 장학빌딩을 마포에 12층 높이의 한국의 40만 서울대 동문의 마음의 고향 안식처를 자랑스럽게 세웠다.

그러나 약 7400명의 멤버를 자랑하는 미주동창회는 아직도 이 미국 땅에는 퀘렌시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0년 역사의 미주동창회는 매 2년 회장 임기가 끝나는 때가 되면 동창회의 귀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수십 박스의, 언약패를 메고 새 회장이 있는 도시로, 긴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슬픈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이 땅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담아둘 장막을 기필코 세워야 한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망향가'는 이 좁에서 멈추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우리와 우리의 이민 후배들이 문힐 이곳에서 우리들의 '희망가'를 불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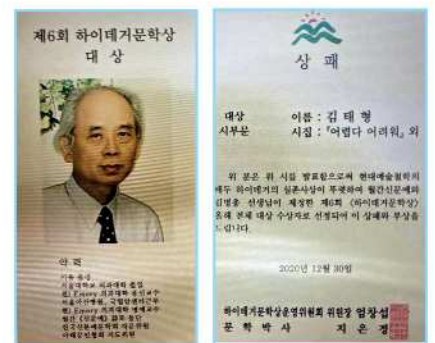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게는 저마다의 삶 속에 '뉘'이 있다. 뉘은 살아 있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엄숙한 인생의 명령이다. 즉 '목숨'과도 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내게 운명으로 주어진 나의 '뉘'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 한다.

15대 회장 임기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안식처 퀘렌시아 집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지만, 종신이사비 20만 불을 더해 주춧돌 하나를 더 쌓으려고 한다. 제2의, 제3의 주춧돌이 쌓여가서 마침내 이 땅에 서울대 클럽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김태형 동문 하이데거상 수상

2019년에 '신문예' 잡지사에서 시인으로 등단한 김태형(63) 동문이 시계탑에도 게재한 바 있는 '어렵다 어려워' 라는 작품으로 2020년에는 제6회 하이데거 문학상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상패에는 현대예술철학의 태두 하이데거의 실존사상이 뚜렷하여 월간신문예와 김병총 선생님이 제정한 하이데거 문학상 올해 전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패와 부상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 김승업 동문 추모 벤치

지난 해 별세한 김승업 동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벤치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에 설치 되었다. 김 동문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 활동을 한 바 있다.

In Loving Memory of Seung Up Kim, MD, PhD (1936 ~ 2020), a passionate Neuroscientist who served as Distinguished Professor and Director of Brain Disease Research Center at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98 ~ 2007).

또한 교수로 오랜 기간 동안 재직했던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Dermot Kellecher 학장으로부터 탁월한 지도력과 많은 노력으로 stem cell research와 후학들을 양성한 공적에 감사한다는 편지가 편지가 미세스 김승업에게 전달되었다.

- 감사 편지의 내용은 본보 제5면에 게재하였습니다.



2021-2024 BOARD OF DIRECTORS

- 이만택(58) mmtlee@hotmail.com
- 채규철(59) kcchaemd@aol.com
- 최준희(64) johnjchoimd@yahoo.com
- 허선행(64) sun.h.huh@gmail.com
- 최영철(71) ycchoy@hotmail.com
- 심완섭(73) wansupshim@gmail.com
- 남명호(81) lucy.nam@inova.org
- 이선규(89) seonkyu.lee@gmail.com
- 강민중(91) min-jong.kang@yale.edu
- 박은경(00) e.angela.park@gmail.com





김지혜 신상하 동문 부부

(2018 졸업, 내과)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1. 미국에는 어떤 계기는 왔나요?

Dr. 신상하: 주로 영어로 되어있는 의학 용어를 배우고 의학 서적을 읽다 보니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환자를 보고 연구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평소에 관심사가 다양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즐기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했고, 이어 학부와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했기에 외지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어릴 때부터 제가 무엇을 하든지 믿어주시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모로 본받고 싶은 내과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며 자연스럽게 내과를 좋아하게 되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Dr. 김지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1학년 때 상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사실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미국에 계셔서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과는 분야가 방대하고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덕분에 고생도 많습니. 새내기 의사로서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네요.

2. 레지던시 매치 준비 과정은?

지혜: 아시다시피 여러 단계의 시험과 면접을 거쳐야하는데, 무엇보다도 동기생인 남편과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기간 시험 준비를 하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지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달릴때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하는 식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여러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공부 서적인 'FIRST AID'를 첫 장부터 끝까지 남편과 소리 내어 읽으며 의견을 나누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카고 박계영 선배님(90졸, 호흡기내과) 연구실에서의 시간도 무척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하: 생각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중간에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도 맞닥뜨렸어요. 지혜 말처럼 저도 아내의 도움 덕에 포기하지 않고 한결씩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주변 분들의 격려도 컸고요. 시험 결과가 준비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공부 자체에서 의미와 재미

를 느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1순위로 지원했던 프로그램에 매치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3. 지금까지 1년차 생활은 어땠나요?

지혜: 프로그램 분위기도 좋고, 병원 시설도 괜찮고, 판데믹으로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플로리다 기후도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기는 수련 과정이 생긴지 3년 된 신생 프로그램인데, 저희 연차가 15명이고 미국 의대 졸업생과 외국 의대 졸업생이 반반 정도예요. 인턴이라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고생중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어텐딩(Attending physician, 담당 전문의)과 일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병동의 경우 내과가 6개팀으로 나누어져서 일하는데, 팀을 이끄는 어텐딩 혹은 hospitalist(임원 전담 전문의)이 누구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식과 초점이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회진을 상당히 길게 하면서 가능한 감별 진단을 모두 다 생각해보도록 가르치고 꽤 포괄적인 검사 오더를 내리는 반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다른 분은 무엇이 한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족집게처럼 집어내고 정리해주면서 최단시간에 회진을 돕니다. 실제 환자 진료는 교과서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의사의 판단력이 중요함을 깨닫는데,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지도를 받으며 장단점을 배웁니다. 판데믹 관련해서는, 방문객 제한 때문에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으니제가 전화로 가족분들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해야 될 때가 많은데, 관계(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조롭게 의사소통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작은 것에 보호자들이 흥분하거나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가족들이 환자 상태를 곁에서 직접 볼 수 있다면 이해도가 높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상하: 저는 지혜처럼 영어가 온전히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환자 가족들에게 전화할 때 겪는 어려움은 영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호자와의 대화는 컨퍼런스 영어와는 또 성격이 다르네요. 의료의 특성 그리고 전화라는 매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은근히 방어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 상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뉘앙스로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의사로서 한국말로도 환자나 보호자를 대해본 적이 없기에,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했을지라도 이 부분은 똑같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서 경험치가 늘어서 더 원숙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분들을 다독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히스패닉계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스페인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일의 강도는 힘들 때는 힘들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은 적당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각종 시험과 펠로우십(fellowship) 준비 등을 해야하기에 스케줄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이라 아직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수련받기에는 좋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4. 진료 환경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지혜: 미국은 문서로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documentation'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Prove it, document it."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일일이 차트에 기록해야 하는 분위기에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그리고, 의료 비용이나 구조 면에서 병원 문턱이 높아서인지 환자들이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환자들은 매우 아프고, 질병이 복합적이고, 의사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회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아

서 의사로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상하: 맞아요. 차팅(charting) 양이 많고, 다른 의료진이 길게 써놓은 내용도 빠른 시간에 다 파악해야 하니 어떤 때에는 변호사와 일하는 유형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의학 지식도 완전하지 않은데 동시에 여러가지 업무흐름(work flow)을 익혀야 하다 보니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환자들의 인종-문화적 배경이 다양하니 환자를 볼 때 어떤 병력이 나올지 예상이 잘 안되는 애로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희귀하게 접하는 병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되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곳 환자들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한국보다 훨씬 아픈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5.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상하&지혜: 최대한 운동은 챙겨서 하려고 합니다만 너무 피곤하면 그냥 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결심하고 들여놓은 실내 운동용 자전거는 외래 스케줄일 때 반짝 쓰이다가 병동 돌 때에는 거의 옷걸이로 사용됩니다. 하하. 오프 때에는 집에서 youtube 시청을 많이 하고, 요리도 합니다. 잘 먹는 것이 건강의 기초라고 생각해서 주로 한식 요리법을 찾아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요즘은 보드게임에 재미를 붙여서 둘이서 틈틈이 합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바닷가에 가거나 소설 등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6. 최근 읽었던 책 소개해주세요.

지혜: 이민진 작가의 <Pachinko>. 한국계 미국인인 작가가 30여년 동안 구상하고 집필하여 2017년에 출판한 장편 소설인데, 최근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되었어요. 일본 오사카에 왜 한인이 많이 살게 되었는지, 부산과 일본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등 지금까지 잘 비춰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상하: Karl Ove Knausgard의 <My Struggle>을 읽고 있습니다.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자서전적 소설인데 노르웨이 태생의 작가라는 점도 흥미롭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한 작가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책 읽을 시간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네요.

7.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상하: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은 매일 했던 것 같고, 서울의 중심에 자취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어요. 미술관, 영화관, 맛집 등 서울 곳곳을 쏘다닌 기억이 있네요. 제가 건축에도 관심에 많은데, 의대 도서관 재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 캠페인')에 응모했다가 제 기획안이 1등 수상작으로 채

택되기도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희 학생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며 궁금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대 도서관은 그런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칸막이 독서실 스타일의 구조였거든요. 창문도 없어서 답답했고요. 그래서 널찍한 평상, 소그룹 토의실 등 그룹 스터디도 하고 족보 공유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안했었어요. 3층 열람실까지 몸이 불편한 사람도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설비도 설계도에 넣었고요.

8.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은?

여행지 중 다시 가고 싶은 곳은?

지혜: 여름 휴가는 아마도 USMLE Step 3 공부에 쓰일 듯 합니다! 신혼 여행지였던 하와이 마우이 섬에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상하: Florida 내에서는 Naples가 좋다고 하는데, 어디든 아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휴가를 길게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 가서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9.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지혜: 글썽요, 일단은 인턴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야 펠로우십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내과가 무척 재미있고 관심이 많이 가는데, 워낙 인기 전공이라 경쟁이 심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상하: 저도 인턴 생활 중 착실히 배울 것을 다져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tep 3 시험도 봐야하고요. 펠로우십은 혈액종양분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계공학 바탕이 있는 제가 왜 이렇게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기제와 거리가 먼 과에 관심이 생겼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이 가는 대로 연구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10. 미국행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혜: 판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올해 레지던시 매칭이 매우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직접 인터뷰도 다닐 수 있게 되고, 미국 클럭쉽(clerkship)/옵저버쉽(observership)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매칭 지원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상하: 레지던시 매칭이라는 것이 개개인에게 의미가 다를 것이고, 단지 수련을 외국에서 받는다는 것 이외에 가족, 군대, 향후 거취 등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대마다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도 많이 다른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직접 최대한 경험해 보십시오. 자기 상황에 맞게, 자신을 믿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인터뷰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끝)

편집회 초록

편집회는 2021년 4월 10일 오후(동부시간) 1시에 아직도 대면 회의는 불가능하여 지난 호와 같이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되었다. 지난 3개월간 들어온 작품들을 본인과 황창근 사장과 서귀숙 편집위원의 교정을 거쳐서 다시 리스트를 작성했다. 어려운 판데믹 중에도 전미주에 사는 필진들이 아직도 견재하여 많은 원고가 들어왔다. 우리 회원 전체를 위하여 지나친 정치적, 종교적 내용을 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것은 우리 동창회와 시계탑의 불변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다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번 호에는 허선행, 김명원, 서량, 서인석 편집위원의 글이 올라와 있으며 정성이 담긴 박은경 편집위원의 젊은 동문과의 대담 시리즈는 희망에 찬 2021년 봄날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다.

금년에는 모든 것이 평 툭리고 행동반경이 자유롭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으로 학술대회도 아직 미정이다. 따라서 시계탑의 사명은 더욱 무겁다. 편집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편집이 수일 내로 나오면 모든 편집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예정대로 이번 호가 4월 25일경에 발송될 것이다.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이나 시계탑을 애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글; 편집인 서윤석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윤금중(59)동문** - 미시간에 거주하시며 병리학 전공의셨던 윤금중 동문께서 지난 2월 22일 소천하셨습니다.
- 오준철(60)동문** -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던 오준철 동문께서 지난 3월 29일 별세하셨습니다.
- 김계윤(63)동문** -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시던 김계윤 동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 김광식(71)동문** -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던 김광식 동문께서 근래에 발견한 악성 지방종으로 4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 慈悲와 奉仕의 化身, 최태순 형을 보내며

“A man whose life defined by faith, service and family.” (From Family obituary)



사랑하는 친구 최태순 형은 지난 1월 18일 향년 85세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순 형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우선 그의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의 넓고 깊은 사랑과 인자함은 이 세상에서 보통 사용하는 우리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고 과묵(寡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춤고 눈 보라치는 밖에서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섰을 때처럼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훈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큰 사랑은 말보다는 인품과 행동에서 은연(隱然) 중에 풍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도 태순 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옆에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한편 그는 내가 미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순 형은 어릴 때부터 깊은 역사를 가진 독실한 Catholic 신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본인도 신부가 되시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태순 형은 많은 신부, 수녀님들과 교류하였고 또 수많은 가톨릭 신도들로부터 지극한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태순 형은 많은 신자들의 대부(代父)가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선친(先親)께서도 태순 형을 대부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태순 형은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톨릭 병원 Buffalo Mercy Hospital에서 Chief of Neonatology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는 특히 Intensive Care Nursery를 맡고 있었는데 은퇴하는 끝 날까지 수십 년 동안 문자 그대로 매일, 낮에도 밤에도, 계속 on call을 한 셈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소아과 레지던트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태가 생기면 태순 선생을 불렀고 그러면 예외 없이 그는 한밤중에도 늘 달려갔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부인께서 많이 걱정도 하셨지만 본인은 절대로,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순 형이 손수 살려낸 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는 천사 같은 은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태순 형의 현저한 공로를 감사하는 의미로 1999년에 그 병원 신생아 ICU를 “Tai-Soon Choi, M.D. Intensive Care Nursery”로 명명하였으니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쏟아온 일평생의 사랑과 봉사의 역사가 여기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동기 이회백 군의 말을 빌리면 “최태순은 우리들 중 가장 으뜸가는 의사이며 우리의 장기려 박사요, Dr. Schweitzer”라고 하였습니다.

태순 형은 미망인 용의 여사와 두 따님 Susanna, Sylvia 그리고 아드님 Steven, 손자 손녀 여섯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심장질환과 척추 통증으로 고생하던 수년 동안 부인과 가족들이 보여준 정성은 사랑으로 넘치는 한가정의 아름다운 전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큰 따님 Susanna의 결혼식 날 모처럼 태순 형이 세상 모든 과제를 미루어놓고 온 가족과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 순박하고 행복에 넘치던 얼굴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태순 형은 훌쩍 떠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몸도 영혼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남을 위해 바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가분하게. 후회도 없이.

그러나 우리는 태순 형을 잊지 않으리이다. 그 인자한 모습, 고결한 인품, 언제나 넘치는 사랑. - 박승균 (61, 버팔로 뉴욕)

### 고 최태순(61) 선배님을 그리며

버팔로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을 때 최태순 선배님을 처음 만나 보였고, 선배님과 사모님의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보살피심 덕분에 타국, 타지에서 외로움을 앓을 사이도 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뉴욕으로 떠나왔다.

지난 1월 18일, 선배님의 임종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과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은퇴하신 후 두 따님이 직장을 갖고 있는 피츠버그로 옮기셨다. 버팔로에 계시는 동안 두 번, 이 년 전 피츠버그에 한번 찾아뵈는 것이 마지막이 되었을 줄이야.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되새기게 된다.

선배님께서는 버팔로 근교 Orchard Hill(Buffalo Bills의 홈구장이 있는)에 있는 Mercy Hospital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0년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다. 우리 모든 동문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최선배님의 열의와 정성은 참으로 지극하시어, 한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병원으로 달려가셨다. 항상 선배님을 극진히 보살피주시고, 함께 운전해 가시며, 차 안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시게 하시며 애뜻하게 아껴주신 사모님의 55년에 걸친 알뜰한 아내 역할이 큰 힘이 되셨겠지만, 병원 직원들의 감탄과 감사는 근무하시던 40년 동안은 물론, 임종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날 병원장 이하 모든 병원 식구들의 염원이 묻혀 신생아 중환자실을 Dr. Tai Soon Choi NICU로 바꾸었다.

호주머니에 달랑 \$50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후, 두 명의 의사 및 한 명의 교육자인 세 자녀들,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여섯 손주들을 모두 사랑으로 아울러 다복한 가정을 꾸려오실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셨다. 버팔로 가톨릭 사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활약하셨고, 교우들과 후배 의사 가족들에게 항상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대해주신 최선배님을 모두들 오랫동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시다 돌아가셨지만, 이젠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날아다니시고, 더욱 활약하시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더욱 살뜰히 보살피주시리라 믿는다. 저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느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 서인석 (73, 대뉴욕주부)

### 광식형을 추모하며



금년 졸업 50주년을 맞아 자네를 볼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는데 자네가 떠났다는 날 벼락같은 소식을 들었네.

몇 년 전 서울에서 함께 저녁을 한 게 마지막이 되어버렸구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작별의 인사도 없이 황망히 떠났단 말인가.

되돌아보면 자네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박사로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었지. 서울에 올라와 대학생활을 함께 하던 때, 자네와는 형제처럼 의지하며 고단한 서울 생활을 견뎌내었지. 필운동 자네 집에서 바둑도 자주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네. 그 후 자네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대단한 학문적 성과를 이룩하였고 나는 마음속으로나마 자네의 성공을 축하하며 내 일처럼 자랑스러웠다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항상 마음의 끈은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네.

이제 우리가 영원히 헤어져야 할 시간, 자네의 개구쟁이 같았던 그 미소가 다시 떠오르네. 아무쪼록 저 높은 곳에서 편안히 쉬시게. - 2021년 4월 7일 김영석

It is with great sadness that we announce the passing of Kwang Sik Kim, the Division Chief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t Johns Hopkins. Dr. Kim was a Professor of Pediatrics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olecular Microbiology and Immunology the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He was a very kind and supportive leader who will be missed for his professional and personal contributions to Johns Hopkins and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s.

Dr. Kim received his medical degree in 1971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fter serving three years in the Korean Air Force, he completed a pediatric residency at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a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fellowship at Harbor-UCLA Medical Center. He subsequently became the Division H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Dr. Kim was recruited in 2000 to Johns Hopkins as the Chair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Dr. Kim's major scientific contributions were in the area of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s. His work was amongst the earliest to demonstrate the mechanisms used by pathogens to penetrate the blood-brain barrier and cause neurologic disease. He had tireless passion to advance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of the pathogenesis, prevention, and therapy of neurologic infections. Dr. Kim's blood-brain barrier model has been used by investigators throughout the world to understand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and inflammation. In addition, his blood-brain barrier model w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vel concepts such as the neurovascular impact of Alzheimer's disease and transendothelial migration of monocytes into the brain a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HIV encephalopathy. Dr. Kim's research program was supported by NIH R01 grants since 1984, resulting in more than 350 peer-reviewed publications and innumer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ctureships. His work has been cited more than 29,000 times.

In addition to his scientific rigor, Dr. Kim was committed to mentorship and training. Since arriving at Johns Hopkins in 2000, he secured and maintained a T32 training grant for the Pediatric Infectious Disease Division that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many nationally recognized leaders in the field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His encouragement, support, and mentorship for young investigators and physician scientists will always be remembered. We offer condolences to his wife and two children.

We will remember Dr. Kim as a giant in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s. He will be greatly missed and remembered fondly.

Kwang Sik Kim was a Professor of Pediatrics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olecular Microbiology and Immunology the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and the Division Chief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He was a very kind and supportive leader who will be missed for his professional and personal contributions to Johns Hopkins and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s. Dr. Kim received his medical degree in 1971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fter serving three years in the Korean Air Force, he completed a pediatric residency at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a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fellowship at Harbor-UCLA Medical Center. He subsequently became the Division H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Dr. Kim was recruited in 2000 to Johns Hopkins as the Chief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Dr. Kim's major scientific contributions were in the area of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s. His work was amongst the earliest to demonstrate the mechanisms used by pathogens to penetrate the blood-brain barrier and cause neurologic disease. He had tireless passion to advance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of the pathogenesis, prevention, and therapy of neurologic infections. Dr. Kim's blood-brain barrier model has been used by investigators throughout the world to understand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and inflammation. In addition, his blood-brain barrier model w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vel concepts such as the neurovascular impact of Alzheimer's disease and transendothelial migration of monocytes into the brain a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HIV encephalopathy. Dr. Kim's research program was supported by NIH R01 grants since 1984, resulting in more than 350 peer-reviewed publications and innumer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ctureships. His work has been cited more than 29,000 times. In addition to his scientific rigor, Dr. Kim was committed to mentorship and training. Since arriving at Johns Hopkins in 2000, he secured and maintained a T32 training grant for the Pediatric Infectious Disease Division that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many nationally recognized leaders in the field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His encouragement, support, and mentorship for young investigators and physician scientists will always be remembered. We offer condolences to his wife and two children. We will remember Dr. Kim as a giant in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s. He will be sorely missed and fondly remembered. With heavy hearts, The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Division



고 김광식 동문의 장례식





# Voltaire의 칸디드(Candide)

-코비드와의 전장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이수인(63, 남가주)

Gutenberg project는 우리의 local library account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원어로 된 고전들을 download 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에 있는 책들은 amazon에서도 kindle app을 통해서 무료로 읽을 수 있다. 나는 여러 책들을 다운로드했는데 그중 하나가 '칸디드'다.

북국의 Aschenbach는 남국의 정열이 그리워 베니스로 간다. 미소년에 빠져 버린다. 아첸바흐가 왜 죽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베니스의 죽음'을 다시 읽다가 지성으로 짝 차버린 문장에 온정신을 쏟아야 해서 힘이 들었다. 토마스만의 고매한 인생 토론은 읽기가 쉽지 않다.

스페인인들의 laidback한 생활의 자세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자를 낳았을 것이다. 불란서인들의 언어의 유연성이 불란서가 노벨문학상을 제일 많이 탄 이유라 한다.

에밀 졸라나 발작 등 사실주의 작가들의 사회 관찰의 plot들은 풍경화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몰리에르의 익살을 들어도 좋다. 모파상의 경쾌한 씩카즘을 즐기는 것은 어떤가.

이번엔 볼테르의 satire를 읽어보자.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작가는 이 책을 날카로운 wit를 가진 독자를 위해서 썼다고 고백한다.

Bernstein의 operetta Candide가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공연 됐을 때 나는 이 작품이 Leibniz의 optimism을 비판한다는 것을 몰랐다. Leibniz의 설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란 것이다(God chooses the best).

18세기 철학자 볼테르의 소설 '칸디드'는 fast moving plot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풍자롭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바이러스나 정치적 hostility로 인한 사회상은 optimism에 대한 비판이 똑같이 적용되겠다. 우리 주위에 있는 slander pieces나 쓰는데 열을 올리며 동료 인간들에게까지 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행할지 생각해 본다. 이런 글들이 분별 있는 시계탑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Candide'나 그의 철학적 소설 'Zadig'은 로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줄 것이라 평이다(digne de plaire). 어떤 이는 이 책을 백 개의 영향

력 있는 책 중의 하나라 말한다. 이 소설의 중요 인물들은 Pangloss, Cunegonde와 Candide다.

팡글로스는 형이상학과 신학의 학자로 칸디드와 퀴네공드의 가정교사다. Leibniz의 optimism을 표방하는 인물이다. Syphilis에 걸리고 교수형에서 살아남고 해적선의 노예로 지내면서도 그의 optimism을 버리지 못한다.

"All is for the best in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칸디드는 끝없이 관대하다. 그는 등장인물 Anabaptist처럼 많은 사람들을 돌봐 준다. 퀴네공드를 찾으러 세상을 헤매면서 자기 스승의 optimism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 Optimism은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라 결론한다. 오히려 세상을 편력하면서 위험을 피해가는 Martin의 다소 pessimistic한 생각에 귀를 기울인다.

퀴네공드는 칸디드의 사촌이며 어린적 애인이다. 불가리아 군인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매매되어 성 노예로 지내는 동안 칸디드와 재회했을 때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칸디드는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그녀를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킨다.

이 소설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다.

칸디드는 Westphalia의 남작의 사생아 조카다. 딸 퀴네공드와의 키스 장면이 발각돼 성(castle)으로부터 추방이 되면서 그의 역정이 시작된다. 불가리아 군대에 잡혔다가 도망친다. 홀랜드에서 Anabaptist를 만나 리스본으로 가는 도중 리스본의 대지진을 만난다. Anabaptist는 죽고 리스본에서 성 노예로 팔려온 퀴네공드를 만난다. 남작의 가족이 불가리아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퀴네공드를 성 노예로 공유했던 늙은 유태인과 grand inquisitor를 죽이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망친다. 거기서 새 시종 Cacambo와 Eldorado 땅에 도착하는데 길에 널려있는 금과 보석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한다. 많은 보물들을 red sheep에 싣고 유포피아를 떠난다. Cacambo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보내 퀴네공드를 베니스로 데려오도록 부탁한 다음 파리로 가서 많은 엘리트들과 사귈다. 터키로 가서 해적선의 노예가 된 팡글로스를 구해낸다. 거

기서 추하게 변해버린 퀴네공드를 만난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기로 한다.

리스본의 대지진이나 칠 년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이 포함된 이 소설에서 작가는 무엇을 쓰려고 했나 알아보자. 물론 optimism에 대한 비판이 주제이다.

볼테르는 가톨릭의 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비평의 문장은 여기저기 나타난다.

원죄를 믿지 않아요.

유태인 늙은이와 Grand Inquisitor가 퀴네공드를 성 노예로 낚자를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공유하게 만들어 Inquisitor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Pope Urban의 사생아라 주장하는 늙은 여인이 불운을 좇아 격게 한다.

수녀원에 대한 비평을 보자.

한 수녀는 소리친다. 내 부모는 나를 억지로 이 곳에 처넣었어요. 벽에 머리를 박고 죽을래요. 이곳에 불을 지를래요.

교회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은 Inquisitor의 시체는 교회에 묻고 유태인은 쓰레기통에 넣는다.

칸디드가 만난 제당 공장의 노예는 한 팔과 한 다리가 없다. 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교적인 비평 때문에 이 책은 금서가 됐었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비평이다.

베니스에서 만난 백작 Pococurant는 문화적 유산에 질려있다. Homer와 같은 고물은 녹슬은 메달처럼 도서관을 차지하지요. 괴물 같은 오페라는 이태리를 영광스럽게 했지만 거세를 한 친구들의 떨리는 괴성을 들어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비극들을 바라볼 수가 없네요.

정부에 대한 비평도 잊지 않는다. 관리들은 모든 것을 갖고 사람들은 가진 게 없네요.

칸디드 일행이 도착한 Eldorado가 어떤 곳이지 알아보자. 페루에 있는 Inca족의 나라인데 바위와 절벽 때문에 사방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 문들은 은으로 되어있고 응접실은 루비와 에메랄드로 장식돼있다. 다이아몬드 잔에 sugar cane 술을 마신다. 길은 루비와 에메랄드로 깔려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어서 신에게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모두가 동의를 해서 정치적 토론의 이유가 없다. 건물은 구름에 닿고 감옥이나 의회도 없다.

칸디드는 이 유포피아를 떠난다. 퀴네공드가 그곳에 없어서이다.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몇 Eldorado의 붉은 sheep에

루비를 싣고 세상에 가면 모든 왕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베니스로 가는 도중 많은 돈을 쓰고 해적선에서 사취를 당해서 대부분의 보물이 사라진다. 돈은 쉽게 사라진다는 얘기다. 많은 piastres를 소비한 뒤 그들은 더 행복하지가 않다.

일행은 터키에서 한 농부를 만난다. 노동의 단순한 생활은 게으름, 죄악과 탐욕을 멀리한다는 것을 배운다. 칸디드와 일행은 농부의 말을 따르기로 한다.

유포피아보다 더 완전한 사회는 열심히 일을 하는 데서 생기고 신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 목련화 연정

나두섭(73, 남가주)

따스한 산들바람 불어오면  
입술 연지같은 꽃망울 터뜨리며  
찾아오는 화사한 봄의 전령

자색 분홍색 흰색의 꽃잎에  
마음이 물들여지면  
눈빛은 꽃빛과 어울려

선녀의 치마폭같은 꽃잎을  
하늘거리며 유유히 서있는 자태  
연인이야 바라보네

정다운 눈길 아랑곳 없이  
화려한 꽃잎을 미련없이 버림은  
속마음을 보이기 위함인가

바람이 멈추어서 꽃잎을 흩지마라  
꽃잎을 떼어내면 꽃은 어찌하라고  
봄바람을 무엇으로 막아내랴

혼인 식장의 꽃소년처럼  
흩어져 떨어진 꽃잎을 밟는다  
아련하게 떠오르는 얼굴들을 그리면서

사진: 나두섭동문

## 고 최태순 동문 따님의 글

Our father, Tai-Soon Choi, lived an amazing 85 years filled with purpose and love. His childhood was one of hardship and struggle, and against all odds he graduated from SNU Class of 1961. He and our mother, Young-ui, met in Seoul and she saw in him a loyal, hard working, loving man with whom she could build a future. Together they moved to Buffalo, New York where they raised us, their 3 children. Many know our father as the humble dedicated neonatologist who single-handedly ran the NICU at Mercy Hospital of Buffalo, treating thousands of patients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He was a true servant leader, and even years after he retired the staff at Mercy remember him and are going to place a memorial brick in the hospital garden to honor him. We know him as the man who always put others first, whether it be his patients or his family. As his children, we remember hearing the garage door at all hours of the night when he would need to rush to a delivery. We remember eating dinner in the hospital cafeteria and playing in the hospital lobby as we waited for him to be done seeing patients. We also remember him showing up to our school events and recitals, taking us to Florida for summer vacations, teaching us to ride bikes and drive cars. He worked as hard at home as he did at the hospital, mowing the large yard and resealing the black top driveway, yet he always made time for our family. We have precious memories of our time together, enjoying pizza and chicken wings, attending his grandchildren's musicals and sporting events, or watching the Buffalo Bills play.

Our father was a man of simple tastes, happiest being at home with family, watching the news and reading the paper. Once he retired, he devoted himself to enjoying life with his one true love after they moved to Pennsylvania. He and our mother celebrated their 55th wedding anniversary in 2020. Their selfless love for each other gave us the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our own lives. We love you, dad. (The Choi kids)

## 고 김승업 동문 부인에게 온 학장의 감사편지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ear Mrs. Kim:

On behalf of the UBC Faculty of Medicine, please accept my sincere condolences on the loss of your husband, Dr. Seung U. Kim. While I did not have the honour of meeting Dr. Kim, I understand from Dr. Jon Stoessl that he made many important contributions to our understanding of regenerative medicine and its application on neurological diseases and cancer.

We are grateful for Dr. Kim's research leadership within the UBC Department of Medicine, and for his efforts to elucidate the possibilities for stem cell-based and gene-based therapies, including the potential obstructions to the use of such therapies in clinical settings. As our research community continues to expand its focus on accelerating translational medicine, it is vital that we consider the potential challenges alongside the possibilities of any research endeavour, so that new knowledge can be developed into tangible improvements in clinical care as quickly as possible.

Dr. Kim will be remembered by our community for his tireless commitment to stem cell research, and for his work to offer hope to people with deteriorative disease. I hope you as proud as we are of all that Dr. Kim was able to accomplish.

May you be well as you remember this remarkable man.  
Sincerely,

Dermot Kelleher MB, MD, FRCP, FRCPI, FMedSci, FCAHS, FRCPC, AGAG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ine / Dean, Faculty of Medicine  
Vice-President, Health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포도맥 포럼 강연 2020년 6월 11일

#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과 그 질병의 치료, 예방



서운석(68,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전문의)

1964년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이었는데 이런 세균학을 연구하는 면역학, 미생물학과의 기용숙 주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세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며 웃어넘겼으나 이제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면한 코로나 유행병을 보니 그 세균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미국에서만 지난 두 달 사이에 사망했습니까! 또 그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크며.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2) 다음은 어떻게 감염되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병은 환자의 분비물로 튀어나와서 공기로 전염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균은 건강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힘들지만 우리 환경의 표면에 떨어져 있는 균을 다른 사람이 만질 경우에 옮겨가며 일단 인체에 닿으면 코, 눈, 입으로 점막을 통하여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손을 항상 따뜻한(섭씨 25도 이상) 물로 거품을 내면서 비누로 20초 이상 씻고 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가능하면 N95) 사용하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2미터 이상)를 두고 접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척제인 크로락스가 좋고, 알코올은 65% 이상이어야 하니까 마시는 술로는 농도가 약해서 부적당합니다. 균의 분말이 공기 중에 3시간 떠다닌다고 합니다. 금속 플라스틱에서는 48-72시간 분해되지 않습니다. 식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방 성분의 껌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저 비누로라도 손과 몸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균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여운 손자 아들딸 손녀라도 그들을 나이 든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1915년대의 스페인 독감 Spanish Influenza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3) 다음은 질병의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우선 걸려있어도 무증상인 사람이 많고 일단 발병이 되는 환자들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3-10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감기나 다른 독감과 유사합니다. 콧물, 재치기, 두통, 고발열(High Fever), 기침, 피로감, 입맛, 냄새의 변화, 피부의 변화, 등이며 증상이 심해지면 목이 아파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탈수되며 체중이 줄고 차츰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피곤하고 기진맥진해집니다.

그 외 또 아직 모르는 증상도 많이 있지만 혈관 계통의 혈전을 일으켜서 뇌졸중, 심장마비, 신장 피해를 젊은 사람들에게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면 이때는 빨리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 과정에서 테스트는 아주 중요한데 콧속으로 면봉을 넣어서 조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면봉을 부르트리하는 사례도 있고 코피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시술자들은 부드러운 손길을 사용해야 하며 우격다짐으로 면봉을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강은 사각형으로 된 빈 방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

는 의료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본인은 1980년대 초에 HIV 즉 에이즈 환자가 심한 코피를 흘리며 들어오거나 그들을 수술을 해야 될 때 바늘이나 칼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마스크, 가운, 실드 기구), 세척제, 시트 등 여러 필수적인 기구, 튜브, 장갑 등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3월 초기에 일반인에게 마스크를 장려하지 않았던 것은 충분한 물자를 준비 못 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들을 생각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면 다음으로 균에 감염되면 인체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몸은 이 균균이 몸에 들어오면 잠복기를 거쳐 체온을 올리고, 백혈구 특히 Lymphocyte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로 세균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내지 1, 2주 걸리면서 균에 대항하는 항체(Antibody)도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세균과의 전투에서 이겨내고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코로나의 경우는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신체 면역이 약해져서 불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쥐를 통해서 수 많이 변형된 코로나의 돌기를 보십시오. 왕관을 쓴 것 같은 이 바이러스의 특이한 변형 때문입니다. 인체가 적응하는 기전을 이용하여 Vaccine(예방주사약)을 개발하고 치료에 필요한 혈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FDA의 원칙에 의하면 Vaccine을 만드는 과정이 개발 단계 Phase 1,2,3를 거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보통 있지만 이번에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2020년 6월 현재 미국 내 사망자만 10만 명 이상)이 있어서 그 연구와 자발적인 인체 실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속히 6-7개월(12월 말까지) 내로 안전한 주사약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신뢰가 깊은 Dr. Anthony Fauci가 예견했으니 그리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선진국이며 의학 면역학적 연구에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는 저력이 있고 서방 여러 나라의 의학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검사 test로 코로나 확진의 진단이 나온 환자나 그 접촉된 사람들을 우선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고 10일-14일을 기다립니다. 수분 섭취와 영양섭취를 잘하고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남을 위해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되면 증상에 따라서 해열제를 쓰고 안정시키고 이차감염이 의심될 때는 항생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Hydrochloroquine이 듣는다고도 합니다. 그 부작용과 그 처치는 가정의들과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특히 호흡)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산소 공급이 필요하면 코호스 Nasal Tube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도도 튜브를 넣고 기계의 도움을 받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폐렴이 좋아질 때까지 충분한 산소 섭취를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무사합니다. 뇌에 가는 90-92% 이상의 산소가 절대 필요하며 그래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호흡기에 도움을 받으면 물론 진정제를 의사가 줄 것입니다. 잘 처

치를 받으면 2-3주면 회복되는 것으로 희망하지만, 기관지 튜브를 더 오래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관지 절제술(Tracheotomy)를 해야 나중에 성대에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대부분 회복하시거나 혹은 사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5) 일단 이 코로나 COVID-19에 걸리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거리 두기, 만나지 말기, 마스크 하기, 그리고 이겨내니,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로서 견디는 사람만이 적의 화살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잘 인내로서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더 견디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여러 도시에서 Goerge Floyd 사건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찰의 폭력, 인종 문제가 겹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들! 이번 사태로 흥행을 이루는 Zoom을 배후에서 관할하고 개인과 국가의 비밀 정보를 빼다는 의혹을 풍기는 중국 공산당 정부(선량한 중국 사람이 아니라)의 밀폐된 나쁜 시스템을 믿지 마십시오. 전 세계를 세균의 늪에 빠지게 한 그들이 전 세계 인류에게 끼친 인간적인 죄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탓하지 마십시오. 각 나라의 위정자들의 방역 처사가 또한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탁 털어놓고 대책을 수행한 시스템, 우수한 학생들과 사람들이 의료인이 되어온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의료인들, 방역당국 잘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역학적으로 윽게 숨기지 말고 검사하고 또 격리하고 또 검사하고, 온 국민이 정치와 관련 없이 한 목표를 위하여 협력하여 얻은 좋은 결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문명국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국민이 단합하여 방역과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명을 경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세균과 싸우고 연구하는 의료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빨리 Vaccine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79개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더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지난 4월 이 사태로 다 준비되었다가 취소된 우리 37차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주관 학회에 오기로 되었다가 못 온 방역 실무자이신 의과대학병원 담당 교수님들 참으로 잘들 하셨습니다.

군의관으로 육군군학교에서 본인이 이런 대량전상자 관리(Mass Casualty Mangement)를 군의 장교 후보생들과 기성 장교들에게 강의했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무더기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을 연습하는 과목이었지요. 이번 사태에서 무더기로 나오는 환자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역부족으로, 준비 부족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음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핵무기 전쟁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끝으로 이런 인류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에 필요한 가벼운 스포츠, 공포에 휘말린 영혼을 달래는 종교활동, 예술 활동 특히 음악, 미술, 문학, 이런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한글로 소식을 전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학 활동을 저는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세계경제가 바닥으로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균균을 이겨갈 때 차츰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두 분의 강사들께서 이런 경제적 측면의 문제,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7면 팬데믹 후기로 이어집니다)

포도맥 포럼 프로그램을 여러 해 이끌어오신 이영목 선배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코로나 독감 문제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서운석입니다.

지난 6개월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이 질병에 대하여 오늘 저는 이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Virus 소개, 이 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인체가 나타내는 증상과 반응, 간단한 치료 과정과 그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첫째로 바이러스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지구상의 균균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설명하면 제일 큰 것이 기생충, 곰팡이, 리케치아, 박테리아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0.2-0.3 Micron 즉 10,000분의 1-2 CM 크기의 아주 작은 균균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한 줄기의 단백질인 RNA로 되어있는 Genome 즉 염색체인데 겉은 지방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균의 겉에는 변형을 거치며 수많은 돌기들이 붙어 있어서 숙주세포를 침범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형으로 삶은 계란의 단면을 보시면 핵, 세포질, 껍질로 되어있는 것이 모든 동물, 생명체의 기본인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들은 환경, 영양 조건이 맞으면 그 자체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런 단순 세포의 구조도 못 되는 다만 한 줄기의 단백질 즉 RNA로 구성된 염색체 즉 Genome입니다. 겉이 지방층으로 싸여 있으며 돌기로 세포(숙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만 그 속에서 번식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숙주로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영양분을 갈취하여 빠른 속도로 수가 번식하고 숙주 세포에서 빠져나와서 또 퍼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독성을 남깁니다. 따라서 그 세포가 속해있는 그 생명(인체)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고 숙주가 회복을 못하면 사망도 하게 합니다. 이 코로나 계통의 균들은 겉모양이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독감과 같은 부류의 것으로 여러 변형을 거치는 동안에 돌기가 많이 달린 왕관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전자현미경 이전에 바이러스의 발견과 연구는 1930-1950년 대부터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소아마비(Poliomyelitis), 천연두, 감기, 독감 Influenza, 홍역(Measle), Mumps, Shingle, Herpes, Encephalitis(뇌염), 간염 Hepatitis, Rabies(광견병), 근래에 생긴 에이즈 HIV 등등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유행성 출혈열(Hantan Virus Infection)도 이 바이러스 부류에 듭니다.

서울 동북부에 주둔했던 병사들이 출혈성 신장 폐 질환으로 많이 사망했는데 그것은 들쥐가 매개체가 되어 퍼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환자가 헬리콥터로 후송되면 포장도 안된 길을 털려거리며 육로로 앰블런스로 후송된 환자보다 예후가 좋았던 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주 낙후되었던 의학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자유 진영 China Medical Board와 관계된 미네소타 프로젝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 교육에 참여하신 약 90명의 서울대학교 미래 지도자들, 권이혁(예방의학, 전 서울대학교총장, 문교부장관), 홍창의(소아과학)님을 비롯하여 진병호, 김흥기, 서병설, 주근원, 이귀향(간호학) 등등 여러분과 또 미생물 면역학을 미네소타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서울의대 이호왕 교수가 이 바이러스 질병 연구에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것이 1960대였습니다. 그 무렵 본인은





# 트롯의 전성시대

이 건 일(68, 남가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자신이 고전음악 애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LP나 CD들이 거의 다 Mozart, Beethoven, Brahms, Mendelssohn, Schubert, Verdi, Wagner, Puccini의 작품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유료 사이트인 ODK (On Demand Korea)에서 TV 조선에서 방영되던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 2'의 경연 실황과 그 후속으로 나온 '사랑의 콜센터', '뽕송아 학당' 등 프로를 보게 되면서 거기에 출연하는 경연 대회 우승자들인 top 6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와 김희재들의 노래에 푹 빠지기 시작 한 것이다.

그들의 노래는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그런 뽕짝, 아니 트롯이 아니었다. 노래도 참신했지만 노래 부르는 방식, 즉 창법이 많이 현대화되었고 많은 노래들이 템포가 빠르고 희망적이거나, 사랑타령도 훨씬 세련되어 있었다.

예를들어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가사 중 '미아리 눈물고개 임이 넘던 이별 고개 /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해 매일 때...(중략) / 십 년이 가도 백 년이 가도 /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후략)' 하던것이, 오늘날의 '신미아리 고개'에서는 '미아리 눈물 고개 넘어 넘던 이별 고개 /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 고개 / 울며 불며 매달리던 눈물 고개 / 오늘날에 현재 미아리 고개 / 갈테면 가라지 냇두는 고개 / 내가 뭐 잡을 줄 아니 천만의 만만의 콩떡 / 여자답게 상냥하게 보내는 거야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트롯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전에는 트롯 아니 뽕짝이라면 저녁 먹고 들어간 노래방에서 부를 곡 한, 두 곡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다.

아니 나훈아, 남진의 노래 중 한두 곡이나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나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정도는 읊조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이제 내가 임영웅이 부르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바람' 영탁이 부르는

'막걸리 한 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이찬원의 '진또 배기', 장민호의 '7번 국도' '남자는 말합니다' 등에 몰입하게 되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바람'의 가사 중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중략) /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뿐입니다'는 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 노래 가사 자체가 아름다운 한 편의 시였다.

전에 나훈아가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사만 있으면 곡은 저절로 붙어요.' 그의 말처럼 이런 훌륭한 가사 아니 시를 쓰는 작사자들이 있기에 이런 많은 좋은 곡들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트롯(영어: Trot)은 대한민국의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정형화된 반복적인 리듬과 펜타토닉 스케일 음계와 한국 민요의 영향을 받은 떠는 창법이 특징인 장르이다. 또한 트로트는 미국의 춤곡인 폭스트롯(영어: Foxtrot)이 트로트의 어원이며, 기존의 동양 전통 음악과 미국,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음악들이 혼합하여 탄생했다.

1922-30년 사이에는 <사의 찬미>의 윤심덕, 1930년대에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인수의 <예수의 소야곡>,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 나왔고, 1947년에 데뷔 한 현인은 <신라의 달밤>을, 또 1950대 전쟁 기간 동안은 <전우여 잘 자라> 불렀고, 신세영은 <전선 야곡>을 불렀다. 휴전 이후에는 전쟁의 아픔과 실랑민의 비애를 그린 현인의 <군세어라 금순아>,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같은 곡이 유행했다.

1957년에는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대표 가수 이미자가 데뷔했으며, 1959년경부터 LP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최희준, 김상희 등 학사 출신 가수들이 등장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때 또한 현미의 <밤안개>, 1961년에 한명숙이 발표한 <노란 샤쓰의 사나이>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67년에는 남진이 부른 <가슴 아프게>가 크게 히트했고, 같은 해에는 그의 라이벌이자 후일 국민가수로 불리는 나훈아가 데뷔하기도 했다.

1970년 대에는 신인 가수였던 남진, 나훈아가 라이벌 2인 체제를 이루어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 잡았다. 특히 남진은 팝 스타일과 빠른 템포의 트롯을 선보였으며 나훈아는 정통 트롯을 주로 노래하였다. 1970년대 말에 조용필이라는 대형 가수가 등장하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편단심 민들레야> 등을 히트시켰다.

이어 여성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김수희, 심수봉, 주현미가 대표적이다. 주현미는 약사 출신으로 제2회 강변가요제로 데뷔하여 <비 내리는 영동교> <울면서 후회하네>, <눈물의 부르스> <신사동 그 사람> 등의 히트곡들이 있다. 1980년대는 트롯 신예로 떠오른 설운도가 활약한다. (이상 위키백과에서 인용)

2019년부터 TV 조선에서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2>와 KBS의 <트롯 전국체전>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이 큰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선 선출된 신진 그룹인 탐 6가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정통 트롯 계보도 이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훈아, 남진, 설운도, 주현미, 김용임, 김연자 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탐 6를 무척 좋아하고 그들의 활동을 열심히 쫓고 있다. 내 생전에 내가 특정 연예인을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해 본 것은 처음이다. '덕질'이라 해야 그저 매일 밤 그들의 노래나 듣는 정도이고 그들의 실황 콘서트나 생방송에 가보는 것은 엄두도 못 내어 보고 코로나 사태로 더욱이 불가능하니 그저 TV나 Youtube로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탐6 외에 내가 좋아하는 현재 활동 중인 기존 가수들로는 주현미, 설운도, 금잔디 등이 있고 현역에서는 약간 물러서 있는 나훈아가 있다. 그가 작년(2020) 9월에 그의 콘서트인 '대한민국 어게인'에서 불렀던 자작 가사, 작곡인 '테스형'은 아주 철학적인 내용으로 70대 중반인 그의 인생의 한 면을 보는 것 같다.

테스형  
어쩌다가 한바탕 퍽 빠지게 웃는다

...(중략) /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 너 자신을 알라며 퍽 내뺄고 간 말을 /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미스 트롯 경연자 중에 금년 21세인 미국 커네티컷 출신인 마리아가 있다. 그녀의 한국말은 90% 한국인 수준이고 주현미가 부른 '울면서 후회하네'를 부르는 그녀의 노래는 TV로 모습을 보지 않고 노래만 듣는다면 틀림없이 한국 가수가 노래하는 줄 알 정도이다. 그녀의 트롯 창법 중 하나인 소위 '찍기'와 '밀고 당김'은 거의 완벽하였다. 오죽하면 심사위원 중 하나가 '외국인으로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칭찬을 했을까.



울면서 후회 하네 - 노래 주현미, 작사 하늘이, 작곡 안치형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중략) / 울면서 후회하네 아~ 스쳐만 지나갈걸 / 그냥 그대로 있을 걸 당신앞에 머뭇거린 /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후략)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오게 되면 '장민호'가 부른 '7번 국도'를 따라 포함에서 강릉까지 차를 몰아가보려 한다.

7번 국도 - 노래 장민호 가사, 작곡 미소

아프니까 사랑이랬지 잊으려? / 애를 쓰니 더 보고 싶더라 / 7번국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 / 해 뜨는 정동진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 사연 많은 술 한 잔 /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 보고 싶다 사랑아 / 해 뜨는 간절곶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 사연 많은 술 한 잔 /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 보고 싶다 사랑아

올해에는 한국에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결혼 50주년이 되는 5월 1일에 차로 Santa Barbara 가가이에 예약 해둔 호텔까지 캘리포니아 1번 도로를 따라 바닷가를 드라이브해보려 한다.

7번 국도는 못가니 꿩 대신 닭 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 팬데믹 후기

(2021년 3월 12일)

그동안 9개월이 흘렀다. COVID-19 팬데믹으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인구의 거의 10%가 감염되었고 53만명 이상의 귀한 생명이 현재까지 희생되었다. 전 세계를 따져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다. 올바른 의료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경제, 정치적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청소년들의 교육문제, 스포츠, 집회 활동에 또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 특히 의료진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의식주의 기본 생활 필수품과 의료시설과 소비품 생산을 소홀하게 다루던 기본시설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커지는 인종 문제 (Black Life Matters, Anti-Asian Hate Crime)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의 과학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 등 서로를 불신하는 어려움을 인류는 겪고 있다. 호황을 이루는 아마존, UPS, 줌 Zoom, 컴퓨터, 반도체 산업, 또 출근을 안 하고 재택 근무로 교통량의 감소. 새로운 국면의 경제활동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관광업, 호텔 산업의 부정적 결과도 초래했다. 그리고 지식의 전달만이 아닌 인간 사회생활 관계를 터

득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번에 과학자가 찾은 백신의 새로운 개발은 축복이다. 질병의 발생이 우리에게 신이 내린 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던 뱀 같은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백신은 하늘이 주는 선물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Vaccine이 12월 15일부터 공급

되어 의료인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거의 고령자 접종도 끝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월 20일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Biden 정부가 사회집단면역 Herd Immunity을 많이 앞당겨 이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곧 좋은 백신 공급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좋은 약을 기다리는 심

정을 모두가 겪어서 안다.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희생자 발생 통계를 보면 그동안 싱가포르나 대한민국은 다행한 나라이었다.

이번 사태로 깨닫게 되는 것은 전 세계 인류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팬데믹 하에서는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 무사할 수가 없다.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건강문제도 있고, 지난달에는 지나친 탄산가스의 배출로 태양열을 반사하지 못하여 북극의 빙하가 녹아 발생한 기후 변화로 텍사스에 전례가 없이 준비가 안된 무서운 한파가 닥쳐왔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관리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무래도 미국이 주동이 되어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서구 선진국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 워싱턴 동기들은 75세 이상이라 이미 백신도 2차를 다 맞고나서 2주가 지났다. 과학적인 근거로 필요에 따라서 아내와 가족들을 다 생각하여 아직도 마스크도 끼고 1년 만에 모여서 골프 운동을 다시 하게 되었다. 팬데믹으로 불행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인내로서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안전수칙을 계속 지키시고 끝까지 무사하시기 바란다.



수도 워싱턴 68년도 골프모임 다시 시작 3-17-2021

좌로부터 김영덕, 김주평, 정재성, 김희주, 신용계(골프 대장), 서윤석, 주광국, 김철



정재성, 김영덕



신용계, 김진홍



# 東京三才別曲



강창욱(61, 메릴랜드)

철학가요 문학가였던 조지 산타나야(1863-1952)가 말하기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게 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라는 것은 역사를 쳐다보라는 좋은 교훈이다. 백 년은 헤아리기 좋은 간격으로 보인다. 한반도가 일제하에 있었을 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2월 8일에 동경에서는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하였다. 그것이 2.8 독립선언이다. 여기에 참석했던 유학생 중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벽초 홍명희가 있었다.



홍명희 (1888-1968) 최남선 (1890-1957) 이광수 (1892-1950)

이 세 사람을 당시 조선의 삼대 천재 혹은 동유삼대천재(東留三大天才)라고 했다. 세 사람 다 문학의 천재였다. 2.8 독립선언 후 참가자들은 일경을 피해 모두 빨빨이 헤어졌다. 이광수와 홍명희는 곧바로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였고 두 사람은 한 방을 쓰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홍명희는 1888년생, 최남선은 1890생, 이광수는 1892년생. 다만 달랐던 것은 최남선과 홍명희는 조선 제국의 당당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이광수는 11살 때 양부모를 일주일 사이에 콜레라 전염으로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신세였다가 15살에 알지 못하는 독지가의 은혜로 동경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그후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최남선과 홍명희를 만났다.

세 사람은 모두 한글 문학 활동을 하였다. 홍명희는 임꺽정 연재로, 이광수는 무정의 연재로 유명 해졌고 최남선은 집안의 덕분에 몇 번의 한국의 신문화 운동을 위하여 한국어 출판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일이 잘되지 않았다. 그는 방향을 돌려 조선의 귀중한 고전들을 편집, 번역, 출판하여 민족문화에 여정

을 드렸다. 무엇보다도 '조선광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우리의 고전을 한글로 출판하였고 한글의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려고도 했다. 춘원 이광수는 새로운 한글로써 새로운 장편소설들을 써가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의 문학에 기여한 공헌은 표현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편하게 쓰는 이 한글의 언어로서 또한 문학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그의 공헌은 표현하기 어렵게 광대하다.

한반도의 8.15 해방과 더불어 세 사람은 빨빨이 헤어졌다. 거의 세상에서 잠적된 셈이었다. 홍명희는 정치에 가담하여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박헌영과 여운형과 연결이 되어 마침내 북조선으로 넘어갔고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은 은둔의 세월로 지나면서 친일문제로 옥고를 치러야 하였다. 한글문화와 한국의 고전을 살리고, 새로운 언어와 문학의 개척을 위한 이 세 천재의 노력이 오늘날의 한국의 문학 발전, 한글의 세계적 전진 공헌한 것은 불문가지다. 단지 한글문화와 문화에 공헌한 이 세 사람을 젊은 학도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고급 세단을 탄 사람이 그 차를 만들려고 땀을 흘렸던 공장의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운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육이오전쟁은 괴이한 운명을 불러왔다. 1950년 서울이 북조선의 손에 들어갔을 때 춘원 이광수는 북한으로 납치되어갔다. 당시에 홍명희는 북조선의 부수장이었다. 그러나 홍명희가 이광수의 처지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홍명희가 이광수의 위치를 알았을 때는 이미 이광수는 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광수는 평생 결핵으로 고생을 했지만 의사인 부인 허영숙 여사의 지극정성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도 그 많은 책(춘원 전집 10권)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북한에 피랍자로 끌려다닐 때는 허여사가 그의 곁에 있지 않았다. 이광수는 북한의 특별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최남선은 다시 집필 활동을 시작했으나 1958년에 작고하였다.

한국의 세 천재가 동경에서 2.8 독립선언 후에 빨빨이 헤어졌다가 백 년 전 1921년에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문학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우리나라의 한글과 문학에 기여한 것은 영국의 초서(Geoffrey Chaucer, 1343-1400)가 영국 문학을 일으킨 공로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한다.

화석 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최소 3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홍·충적세를 거쳐 약 1백만 년 전에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약 20만 년 전부터 도구를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인간이 사회적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약 5만 년 전 경으로 추정되며 약 1만 년 전 경부터 농경문화와 더불어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

4355년 전 금수강산 신단수 아랫마을에서 곰이 100쪽의 마늘을 먹고 백일간 햇빛을 보지 않고 나서 (참을성이 없어서 도망간 호랑이를 제치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단군왕검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고, 약 2백여 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약 50년 전에 컴퓨터가 등장했다.

1946년에 나온 ENIAC는 1만 8천 개의 진공관에 무게가 30t이나 되었으며 150kW의 전력을 소비하는 거대한 기계였으나 지금은 반치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컴퓨터도 나오고 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선생이 살아계셨으면 중력의 <무서운> 가속도에 대해 한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긴 2015년 이스라엘의 한 작가는 이 추세로 나가다간 인간이 '전지전능'해 지는 Homo · Dues(신인)가 되기는 시간문제라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2019년 인간들이 버려지보다 못하게 알아야 보던 미세 물건이 화관을 쓰고 어디선가 튀어나와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렇게 빨리 돌아가

다간 피대가 열을 받아 끊어질 터이니 좀 천천히 가거라 하는 양...

고고학자들이 영장류의 뼈에서 인간종을 가려내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서로 교배를 시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골통의 크기이다. 골의 크기가 인간의 1/3 정도 밖에 안 되는 침팬지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앞날을 걱정하는 상상력과 경험을(본능적으로) 피하거나 반복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고쳐서 활용하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

즉, 인간이 진짜 인간인 이유는 「생각하는 갈대」 이상의 그 무엇인가 <꺾어지지 않고> 「바람에 휘는 갈대」 일진대, 인간을 Homo Sapiens(현명한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Homo Flectere(굽히는 자) 내지는 Homo Metamorphose(변형하는 자)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식당도 못 가고 극장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니, 코로나 '덕'으로 생활습관을 딱 한 번 바꿔봐(?!). 그러나 나이 칠십이 넘으면 뇌가 침팬지만큼 쪼그라들었을 터이니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개선책을 강구할 능력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동안 쌓아왔던 못된 버릇들도 피할 핑계가 없으니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새



김명원(68, 남가주)



아내와 함께 루벤스 특별 전시를 보러 게이티(Getty) 뮤지엄을 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이견일과 송창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들도 가겠다고. 가까운 곳에 즉흥적으로 불러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푸른 하늘에 햇살이 눈부신 남가주의 아침이다.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그림 보고, 미술관 뜰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미술관 근처 어디에 조촐한 양식집을 하나 찾아서 와인도 한잔 마시며 하루를 뭉개자 했더니 모두 찬성이다.

가기전에 "옹가네"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기로 했다.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 니가 먼저 들어가. 니 마누라는 저쪽으 들어가라구 허구." "아유, 아무나 들어가 앉으면 되지 뭐... 꼭 제 짝 하고만 앉을라구 그래요." "그래 남의 여자하구 좀 앉아 보자, 뭐."

이른 시각이라 식당엔 사람들이 별로 없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 떠든다.

"창호는 낙지 돌솥비빔밥이지? 애는 여기 오면 노상 그거야. 내가 잘 알지. 나는 갈치 조림. 당신은 뭐 먹을까? ...어명원인 은대구 조림 할까야?"

"그거 비싼데.", "둘이 먹어도 돼. 나 나눠 먹지 뭐."

"그럼 창호 너 이쪽으로 와. 난 명원이 하고 나눠 먹어야하니까."

"그럼 미세스 리도 이쪽으로 바꿔 가야지."

미세스 리는 메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는 비빔밥 하나루 둘이 나눠 먹어두 돼. 그지?"

미세스 송과 나눠 먹기로 의기투합.

"그럼 우리 그냥 비빔밥을 둘 시켜서 셋이 먹으면 되겠다."

"밥은 흰밥으루 할까요? 아니면 잡곡밥?" 중구 난방 속에서 아주머니는 용케도 주문을 받아낸다.

"전부 다 흰밥요?" "비벼 먹으려면 흰밥이 좋지" 낙지 돌솥비빔밥이 먼저 나왔다. 열중해서 손가락으로 비비다 말고 "이게 워낙은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라며?" 창호가 묻는다.

"맞아. 옛날 양반들은 순갈로 비비면 밥알이 으개져서 딱이 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비벼데"

"야, 나 그거 한 손가락 만 먹어 보자." 한 손가락이 아니고 거진 절반을 퍼준다.

"그건 너무 많다야."

"어, 그래 나두 한 손가락 언어 먹으려 구 하는데."

송창호가 노상 낙지 돌솥비빔밥만 먹는 이유를 알겠다.

"와, 이거 맛있네?"

"어, 나는 맛은 있는데 이빨이 시원찮아서 누렁지가 씹히면 턱이 아파."

"나두 그래. 누른 밥이 씹히면 그냥 우물우물 달래서 넘기지"

나머지 음식도 다 나왔다.

"해장술 한 잔 안 해?"

"어이, 나는 옛날부터 해장술은 못해."

"그냥 해 본 말이야. 야, 옛그저께 너하고 먹은 술이 아직도 몸 속에서 안 빠져있어 거 같애."

"건일이 넌 술 콘트롤을 잘 하던데 그날은 어째 그렇게 많이 마셨냐?"

"손님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주인이 마사라면 마시는 거지 뭐."

"이이는 한 번 메타가 꺾어지면 그냥 막 가요."

"그 버릇 좀 고쳐야 되는데 말이야."

선선히 이실직고한다.

"나 그 두부 좀 먹어도 돼요? 쪼끔만 ..."

"은대구두 좀 가져가지지 ..."

"난 생선은 말고 졸인 무우만 좀 주세요 ..."

주는 사람이 더 기분 좋아지는 청(請), 모두들 먹는 데로 정신이 팔리기 시작하니 좀 조용해진다.

식당 유리문을 밀고 불쑥 불쑥 들어서는 손님들마다 화창한 아침 햇빛을 함박 등에 지고있다.

언뜻 떠 오르는 노래 하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어 어라~. ... .. 보름 나알은 가야안다.'

우리의 세월도 그렇게 간다.

뜬금없이 우러나오는 내 마음 속의 기원(祈願), 우리 모두들 오래 살자, 건강하게, 넘어지지들 말고...

로운 것에 욕심내지 말고 「은고이지신」이나 잘해 볼 나이이다.

자가격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시장보기 성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갔더니 팬 트리에 '2차 세계 대전 때부터' 비축해 온 강통식품, 면발류가 말끔히 청소됐고 이왕 내친

김에 그까짓 있으나 마나 한 불알이야 떨어지든 말든 앞치마를 걸치고 요리 전선에 뛰어 들었다. 얼마 안 가서 비린내 안 나고 아삭아삭한 콩나물 무치는 법·속껍질까지 흘러당 버겨지는 계란 삶는 법·타지 않고 육즙이 넘치는 한 소시지 통구이 법도 발명해 냈다.

한 일 년쯤 되니 요리의 진미는 가능한 최소의 재료로 가능한 한 최대의 맛을 뽑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김치도 채소와 소금만 쓴 백김치가 제일 맛나고 무장국은 쇠고기 한 점에 다시마 한 잎만 넣으면 짭이다. 밥을 해서 보온 통에 두지 말고 재까닥 냉동시켜야 쌀 내음을 보존할 수 있고 양념의 왕자는 그냥 소금이다. 그러다 보니 요즈음은 물에다 밥 말아서 새우젓 찍어 먹는 소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아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이 된다.

밥 먹고 정원에 나가 잡초를 뽑으면서 포기마다 갖든 향기와 그 생명력에 감탄

을 금할 수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왜 아직 이것을 몰랐던가?' 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예전에 <무얼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는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다. 나태주 시인 말마따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이다.

코로나라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온갖 문전 박대에도 같이 살자고 때를 쓰고 있다. 염치가 없는 놈들이다. 그렇담 어디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네놈들은 먹을 게 없으면 몇 시간을 못 가지만 우리들은 물만 먹고도 2주는 버틸 수 있다. 그동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 인간이 침팬지와 또 다른 점은 끈기가 있다는 점이다. 2020년 7월 30일 발사된 미국의 우주선 이름이 「Perseverance (인내)호」 라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최근 유전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대뇌의 크기보다 그 속에 있는 신경질의 성장 속도라는데 침팬지에서는 신경원과 연결 다발의 증식이 급속도로 일어났다가 빨리 끝나는 반면 사람에서는 서서히 진행되어 20세가 되어야 정지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점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온갖 역경을 디디고 여기까지 왔듯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란다.

인간 이원택은 오늘도, 수년 전 심장수술 후 누가 갖다 준 통마늘 조림 한 병을 냉동고에서 꺼내놓고 한쪽씩 물 맑은 밥에 얹어놓아 먹고 있다. ...웅녀가 되기 위해서.



이원택 (71, 남가주)





# The Story of Saber Fighters



정 관 호(63, 대뉴욕)



이 일은 1950년 여름 아마 7월 후반기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 누나, 나 이렇게 셋이서, 셋째 누나와 그 가족이 살았던 경기도 용문으로,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는 용문행 보행의 제2일째 되었던 날이었는데, 우리는 길을 때 그 지역의 농부를 전혀 보지 못했다. 분명히 그들은 공격했던 북한군과 방어하며 퇴각했던 남한군 사이의 전투를 두려워하여 대로에서 떨어진 집 속이나 혹은 먼 곳에 있는 친척 집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남쪽으로부터 날아오던 두 대의 세이버 전투기를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우리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군 비행사나 군인이 고의로 민간인을 해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직후 앞 전투기가 우리 위에서 선회하더니 우리를 향하여 갑자기 쏘살같이 하행하는 게 아닌가?

마치 그가 우리를 향하여 사격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셋은 필사적으로 길에서 논둑으로 뛰어 작은 이랑에 몸을 엮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내려오던 첫 전투기가 조금 후에 방향을 돌려 상향하여 가버리며, 그 뒤를 쫓던 두 번째 전투기 또한 첫 전투기를 따라 북쪽으로 가버렸다. 이 아슬아슬했던 상황은 모두 몇 분도 되지 않았던 짧은 순간에 일어났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논둑에서 나와 다시 용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그 날 저녁때에는 누나네 집에 도착하였다.

아마 그 비행사는 우리를 우리를 인민군으로 의심하고 사격하려고 하다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민간인이었음을 알게 되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고맙게 뒤에서 오던 조종사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구해준 건 아니지만, 조종사의 깊은 배려가 우리를 생사의 위기에서 구해주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후 나는 그 이름도 모를 조종사에게 항상 감사한다.

어느 날 나는 이 이야기를 이곳 나의 환자 남편 되는 사람에게 하였더니, 그는 내게 “아마 저 위에 계신 분이 그 조종사에게 쏘지 말라고 알렸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고, 나도 그 말을 믿으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 조종사의 고마운 판단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당신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기에 그 당시 상황을 열거해 본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 6월 28일 북한군의 서울 점령 / 7월 5일 미국 해병대의 한국전 참전 / 9월 15일 맥아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 / 9월 28일 유엔군의 서울 탈환.

북한 공산군의 서울 점령 3개월간 서울에서는 극도의 식량 결핍이 있었고, 많은 아사자가 생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용문에 가서 몇 주간 지냈다.

그 당시 미군은 B29 폭격기와 세이버 전투기를 보내서 폭격과 사격을 거의 매일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상공에 떠 있던 이 두 가지 비행기를 많이 보았다.

우리의 이틀에 걸렸던 보행 여정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집 성북구 돈암동 - 청량리역 - 원주행 기차길을 따라 동편 대로로 걷는다 - 하룻밤 어느 민가에서 잤다 - 양수리를 배로 건너다 - 양평을 통과하다 - 용문에 도착.

나는 혼자서 흥얼거리며 시를 썼다.

제목: 용문길에서

그때는 7월 오후 맑고 햇살이 화창한 날이었다. / 어머니, 누나, 나 이렇게 셋이서 용문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 우리

는 동쪽으로 비포장길을 걷고 있었는데, / 그런데 갑자기 두 세이버 전투기가 공중에 나타났다. / 우리는 그걸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 왜냐하면 그들의 적은 북한군이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첫 전투기는 우리를 향하여 쏘살같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 우리는 황급히 논둑으로 뛰어서 논 이랑에 몸을 엮드렸다. / 그러나 다음 순간 전투기 속도가 느려졌고 /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어 가버리고 뒤 전투기 역시 그 뒤를 따랐다. / 이 일은 70여 년 전에 일어났다. / 그러나 우리를 향해 내려오던 전투기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 아! 그 조종사의 자애로운 영혼에 축복이 있으리! / 아마 그는 지금쯤 이 세상을 떠났겠지.

(사진: 왼쪽 세이버였던 록히드 P-80, 오른쪽 폭격기 B29 Superfortress)



# 선물

노 영 일(68, 시카고)

내 뒤를 이어 신경내과 전문의로 개업을 하고 있는 큰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내어 집에 왔다. 내 컴퓨터를 써보더니 너무 느리다고 하며 선물로 새 컴퓨터를 하나 사 주고 갔다.

새 컴퓨터를 앞에 놓고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30년 전 이맘때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다.

큰딸이 마사쉴레츠주에 있는 엠허스트 대학에 다닐 때 일이었다.

크리스마스 방학이 되어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대로 집에 오겠다고 전화가 왔다.

일기예보를 들으니 시카고 인근에 폭설이 내릴지 모른다고 한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고 하루쯤 늦게 떠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기숙사가 문을 닫아 그럴 수 없다. 또 마침 시카고 방향으로 가는 여자 동급생이 있어 태워주기로 약속을 하여 그 약속도 깰 수가 없었다.

마음이 찢찢하였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아빠는 괜한 걱정을 하는 게 병이라며 도리어 핀잔을 준다.

오는 도중 중간중간에 전화를 하여 무사히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디애나에 들어섰다고 전화가 왔다. 이제 한 두어 시간만 있으면 집에 도착하겠구나 생각하고 날씨는 어떨까고 물어봤다. 좀 춥고 눈이 내리지만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그것이 마지막 전화였다.

세 시간 네 시간이 흘렀는데 오지도 않고 아무런 전화도 없다.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을 때여서 딸이 휴게소나

음식점에 들어가 전화를 해야만 했고 나는 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는 한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별걱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혹시 무슨 사고나 나지 않았나. 텔레비전을 켜보니 지금 인디애나에는 폭설이 내려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눈에 미끄러져 대형사고가 나고 여러 군데 길이 막혔다. 길가에 미끄러져 떨어진 차량들도 즐비하나 사고가 너무 많아 고속도로 경찰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다. 더욱이 기온이 급강하하여 영하 십여 도로 내려갈 전망이다.

점점 비관적인 생각이 엄습해 왔다.

인디애나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어린 두 여학생이 구조되지 않았느냐? 사고자 명단에 없느냐? 그런 이름은 구조자나 사고자 명단에 없다. 이름과 인적 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고 확인이 되면 즉시 연락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일리노이 순찰대에도 전화를 했다. 같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초조감이 엄습해 왔다. 같이 오는 여학생 인적 사항이라도 알아 돌걸 잘못했다는 후회감이 들었다. 그 집에 전화하여 공동전선이라도 뚫더라면 마음이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일어났다 앉았다, 방안을 왔다 갔다 서성이기도 하며, 연신 창밖을 내다보니 함박눈은 더욱더 실하게 퍼붓고 있었다.

## 望江南 天上月

망강남 천상월

강남을 바라보다. 하늘 위 달 (당조 실명인)

<p>天上月，遙望似一團銀 천상월이여, 요망사일단은이러</p> <p>夜久更闌風漸緊 與奴吹散月邊雲 야구갱란풍점진하니, 여노취산월변운을</p> <p>照見負心人 조견부심인하오.</p> <p>譯文(역문) 창밖을 아득히 바라보니, 몽롱한 달이 마치 한 덩어리 흰색의 은 같네. 깊은 밤 사람들은 말 없고 몸 곁에는 바람소리가 점차 급해진다. 밝은 달은 먹구름에 가려진다. 바람아, 너에게 청하노니, 달 곁에 먹구름을 불어 보내렴. 이리하여 나를 저버린 사람을 비취다오.</p>	<p>하늘 위 달이여, 아득히 바라보니 둥근 은 같네.</p> <p>밤은 깊어 바람은 점차 급해 지니, 나를 위해 달가의 구름을 흩어다오.</p> <p>그리하여 나를 잊은 사람을 나를 잊은 그 사람을 비추어 주오.</p>
--	---

이 시의 소개: 작자는 실명인으로서 이 수시와 기타 여섯 수(首)의 사(詞)는 청대(清代) 광서연간(光緒年間)에 감숙 돈황현(甘肅燉煌縣)의 석실(石室)속에 있었다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당인(唐人)의 손으로 썼던 책자였었다. 가장 오래된 사(詞)라고 생각된다.

이 돈황 사(詞)는 한 수(首)의 실연인(失戀人)의 원가(怨歌)로서, 혹은 민간인(民間人)의 원부사(怨婦詞) 즉 원망하는 여인의 노래일 것이다.

소개: 정관호 (63, 대뉴욕)

낙천적인 아내도 처음에는 뭐 눈이 오니까 좀 늦겠지 하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봐 하더니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이 지나니 초조해하는 눈치가 분명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걱정은 그에 곱빼기로 깊어갔다. 새벽 두 시가 되니 이제 방정맞은 절망감마저 들었다. 차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는가? 눈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얼어 죽은 것은 아닌가? 병원에 전화를 해보려고 해도 어디에 건단 말인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지도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할걸. 첫 번째 사립대학 등록금 수표를 쓰고 나서는 눈앞이 캄캄했다. 내 평생 그렇게 큰 액수의 수표를 써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계속 등록금을 낼 것인가 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를 않았다. 더구나 그 아래로 세 아이가 연년생으로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절약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쓰던 헌차를 주어 태워 보냈다. 비행기값을 절약하려고 했다가 내가 이 천벌을 받는구나!

일곱 여덟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허탈감이 빠졌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 그때만 해도 교회라고는 건성으로 일 년에 한두 번 나갈 정도였다. 내 평생에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해본 기억이 없다.

아내나 나나 이제는 지쳐 비몽사몽간에 있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번개같이 전화를 받아보니 천진스러운 딸의 목소리였다.

너무나 반가워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 사연인즉, 인디애나 고속도로로 오는데 눈이 엄청 쏟아져 길이 안 보였단다. 커다란 트럭 뒤만 따라왔는데 그만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나가버려 가이드를 잃어버렸단다. 대강 짐작으로 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길옆 도랑에 처박혔단다. 허리가 넘는 눈을 헤치고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와 길옆에 오들오들 떨며 서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고속도로 순찰차가 그들을 발견하고 차에 태워 인근 모텔에 데려다줬단다.

폭설로 모텔 전화가 끊어져 전화도 못하고, 우선 얼은 몸을 녹히려려고 더운 샤워를 하고 잠시 누었다가 그만 깜박 잠이 들었단다. 잠에서 깨어나 그래도 걱정을 할 것 같아서 모텔 인근 가게에 나와 전화를 하는 것이란다.

원망을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다만 무사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어서 모텔로 돌아가 꼭 쉬고 내가 낮에 좀 따뜻해지고 눈이 멎으면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다음날 살을 에는듯한 추위를 뚫고 모텔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길가에 수없이 처박힌 차들은 좋은 구경거리였고, 흠날리는 눈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 고자질쟁이 심장

정유석(64, 북가주)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en Poe)는 1809년 유랑극단 배우였던 부모 밑에서 삼 남매 중의 막내로 태어났다.

두 살 때 어머니는 폐병으로 사망하고 아버지도 돌연 행방을 감춰버려 졸지에 고아가 된 그는 당시 담배잎 수송업자였던 존 앨런이란 사람의 양자가 되었다.

17세에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지만 술과 도박에 빠져 빚만 잔뜩 지고 일 년이 채 못 되어 퇴학 당하고 만다. 그 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지만 다음 해 상관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다시 자퇴한다.

그 후 그는 단편소설을 발표하여 소설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는 죽음이라든가 살인과 같은 기괴하고 공포를 자아내는 장면들을 가장 실감 나게 그려내는 작가로, 또 과학적인 추리 탐정소설의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포는 17세 대학 재학 시 이미 그 징조를 보인 것처럼 일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 특히 그의 나이 33살 때 아내가 각혈로 자리에 눕자 그의 음주벽은 더없이 악화되어 갔다. 그는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주벽에 빠져들었는데 어떤 기록을 보면 “포는 딱 한 잔만 들고나면 그 다음에는 밑 빠진 독같이 계속 퍼마셔대었다.”면서 상당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기록하고 있다

38세 때 결국 아내가 죽자 2년 후인 1849년 술에 만취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

에 입원했는데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포의 소설 중에는 그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임을 쉽게 드러내는 단편들이 여러 개 있다. 그중 하나가 ‘고자질쟁이 심장’(Telltale Heart)이다.

영감을 죽이기로 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눈초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기 때문에 은연중에 영감을 죽여 영원히 그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여드레를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의 침실로 숨어들어갔다. 한 시간쯤 기다리자 적막 속에서 영감의 심장 뛰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으스스한 밤의 낡은 집, 무섭고도 고요한 적막 속에서 들려오는 그 기이한 소리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내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영감의 심장 고동 소리는 점점 높아갔다. 저러다가 심장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저 박동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더라도 한다면 어찌나?

나는 영감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는 단 한 번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 영감은 즉시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심장 위에 손을 얹었다. 맥박이 뛰지 않았다. 시체를 토막 내어 땅바닥의 널조각 석장을 뜯고 그곳에 노인의 시체를 숨겼다.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발견되지 않게 교묘히 널빤지들을 도로 박아놓았다. 핏자국도 말끔히 지워버렸다.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 세 명이 새벽에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집안 여기저기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나는 자신만만하게 시체가 있는 마루 위에 의자를 놓고 자리를 잡았다.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한 경찰은 나에게 대한 의심을 풀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출신들은 포용력, 지도력이 필요한 큰 조직의 지도자 제1의 순위에 들어 호감이 좋다고 한다. 나의 그 외의 Bucket List는 훗날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줄 알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보고 싶던 명화 한편 보고 글을 쓴다는 게 좀 비약했던 것 같아 이야기를 ‘서울의 지붕 밑’으로 되돌리자.

한의사 김승호, 좋게 얘기해 자칭 명리학(사주관상가)의 대가 허장강, 복덕방 아재 김희갑의 얽히고설킨 우정과 해학, 술 산다 해놓고 술 먹다 변소에 간다 핑계 대고 뺨소니치는 허장강, 허장강을 찾아오겠다고 그 역시 뺨소니치는 김승호, 볼모로 잡힌 줄도 모르고 술만 먹다 술값 대신 허접한 옷만 벗어서 주곤 발가벗기듯 비 오는 날 주모에게 내쫓기다 시피되어 빗물에 흠뻑 젖은 듯한 김희갑의 애처로운 비틀거리는 모습, 웃음과 애처로움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 이걸 보고 싶노라면 묵었던 체증이 흘러넘 싸악 내려가는 것 같다.

서양의학을 공부한 이웃의 산부인과 의사 김진규와 한의사 김승호의 미인 딸 최은희의 사랑 이야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고 막무가내하는 김승호, 그의 갇은 반대 아닌 반대를 이겨내고 마침내 결혼 골인하는 해피엔딩의 영화는 우리들 70~80대 노인들엔 6~70년 전으로 타임 마신을 타고 잠시나마 서울로 되돌아갔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울도 이제는 불란서 파리 등을 포함 외국의 어느 고도들이 신시가, 구시가지를 구별하듯, 확연히 강북과 강남이 갈려져 있음을 보게 되는 데, 역시 그 나라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곳은 아무래도 구시가지일 것이다. 서울의 지붕 영화는 서민들의 희비애환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들어내주는 그 당시 내 이웃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났을 법한 사건들로 점철된 때론 가슴 졸이며, 때론 환성도 지르며 정신없이 1시간 정신을 뻘뻘 빼버린 영화였던 것 같다.

최소한의 투자로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니 놀라지만 하네요!

담을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물음에 척척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골치가 아프고 귀가 윙윙거리더니 차차 그 소리가 커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귓속에서 나는 소리라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경찰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마구 지껄여댔다. 하지만 소리는 자꾸 커졌다. 나는 숨을 헐떡거렸다. 미친 듯이 떠들어 대었다 마침내 나는 내가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내팽개쳤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직도 웃는 얼굴로 잡아들인 채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나를 조롱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위선적인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그들에게 소리 질렀다.

“이놈들아! 더 시치미 떼지 마라! 내가 저질렀어! 널빤지를 뜯어보아라! 여기다, 여기! 이걸 그놈의 소름 끼치는 고동 소리야!”

오랜 세월이 걸쳐 과음하게 되면 신체 각 부분에 심한 손상이 오게 마련인데 신체적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러 증

상이 나타난다. 그중 하나가 ‘알코올 중독성 환각증 (Alcoholic Hallucination)’이다.

환청과 환시가 모두 나타나는데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은 환청이다. 대부분 술을 계속 마시다가 중단하면 48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끔 술을 마시는 동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환청은 불쾌하고 신경을 거슬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지만 잡음일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끊은 후에도 몇 개월씩 그런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나”가 듣고 있는 노인의 심장박동은 바로 알코올 중독성 환각증의 한 증세다. 흥분했을 때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청진기나 초음파 스캐너를 몸에 대지 않는 한 남의 심장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 “나”는 영감의 눈초리가 무서웠으며 경관들은 자기가 범인인 줄 알면서도 시치미를 댄다고 망상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알코올로 인한 망상증 (Alcohol induced Delusion)’이란 질환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시골 우체국

김병오(69, 버지니아)

겨울비 내리는 시골 길 모퉁이

인적 드문지 오래, 남겨진 존엄을 허물고 있다

한 때 마천루에서 태평양까지 大望을 볼태우던

공룡의 소식이 전해지고

민들레꽃 손편지를 은빛 자전거로 나르던 곳

영원한 번영은 그의 胴體 속에서 사라져간다

거대한 정복과 잉여의 기억도 모두 지우려는 듯

깨진 입구의 층계와 초라한 외등하나 텅 빈 국기계양대를 외면한다

시조새처럼 굳어가는 짧은 文明의 끝자락인가

키 큰 전나무 그림자 지붕을 덮고 있다

光速으로 작아지는 세상만큼 실핏줄이 막혀가는 대륙의 심장

어느 쪽 길로 가야할 지 소식을 묻는 편지들이 길을 잃고 있다

보내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겨울비를 맞으며 뿔뿔히 흩어지는

시골 길 옆 우체국 불안한 소문을 전하는 편지하나 페인트 벗겨진

문틈에 끼어 있다

비 그친 구름사이로 비치는 가느다란 햇살

로빈 한마리 오래된 노래를 부르며 지붕 위로 날아오르고

파릇한 제비꽃 한 무더기 눈속에 묻혀 낮익은 인사를 한다



## 사일이 오면

4월은 언제 오려나?

3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곧 오겠지, 물론 5월이 오기 전에 말이야, 누군가, 아니 TS. Eliot이 그의 시 ‘황무지’에서 표현한, April is the cruelli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후 시인이자 식자(識者)분들이 흔히 애용해서 써오고 있는 짧은 문장이 이것이 아닐까? 한다

시대적으론 어처구니없는 전쟁(1차 세계대전)으로 한 번뿐인 젊은이들의 수많은 죽음을 몰아온 것은 물론 그토록 나대던 산업혁명 등 인간이 이룩해 놓았던 눈부신 발전도 무색해짐을 목격한 섬세한 시인의 마음의 호수에 조각돌 팔매질 하듯해 작은 풍랑을 일으켰음에 틀림없고, 개인적으론 병약하기도, 그렇기에 그 수많은 책 산더미 속에서 희열과 사색으로 내적 충만을 이루었으나 결코 가정생활에선 행복이란 단어가 어색했었지 않나 싶어, 황무지를 쓴 게 아닌가 싶다. 간단히 처음 몇 구절을 옮겨본다.

황무지(The waste land)

죽은 자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Snow)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을 길러주었다

자신의 처지와 그 당시 시대상을 잘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인과 시를 접하면 너무나도 나 자신이 우울함의 심연에 빠져드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시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snow)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을 길러주었다...로 자신과 독자들을 위로하려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기에 가득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공황(恐慌) 상태를 유발했던 ‘잔인한 2020년’을 뛰어넘어 가능하면 희망적인 사고와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여기 생각나는 구절을 옮겨 본다.

설레이는 여인들엔겐 봄날은 은수저도 녹일만한 애뜻함과 사랑이 넘쳐나며, 활기찬 남정네들엔겐 가을은 아무리 두껍다는 쇠 철판도 뚫는다는 이야기를 설왕설래하며 2021년 4월을 맞이하고 싶다.

2021년 3월 22일 청담 문성길

## 서울의 지붕 밑

문성길(70, 남가주)

김승호, 허장강, 김희갑, 도금봉, 최은희, 김진규 등 옛날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이 영화를 어렵사리 스마트전화를 TV에 연결해 극장에 간 기분을 내며 보았다. 40여 달라 들여 USB C to HDMI Cable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그만 기기를 수없이 Best Buy을 들락거리다 마침내 사서 옛 한국 명화 중 첫 번째로 본 게 이 영화,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운동이나 음악 애호가들은 다 알겠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음악회나, 운동경기 관람을 위해 열심히 일해 저축한 돈을 아깝지 않게 투자함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바이다.

일생에 하고 싶던 일들을 여러 사정들이 있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손가락 다섯 가락 정도는 있다. 어디 필자뿐일까?

대표적인 게 아팔라치안 산맥 등정(메인주에서 조지아주 2200여 마일, 6개월 소요). 한때 젊은이들의 “평생소원 항목”(Bucket List)에 빠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참고로 3대 미국 트레일로는 Pacific Crest Trail, Appalachian Trail, Continental Divide Trail 등이 있다. 대개는 젊어서는 먹고살기 바빠 시간이 없어서, 늙어서는 시간은 있으나 건강이 받쳐주질 못해서이나, 필자의 경우는 아마도 나의 결심이 젊었던 예전만 못할 뿐만 아니라 집사람의 우려 섞인 반대 때문이 아닐까 한다. 건강은 아직까지 자신 있다고 하면 집사람은 웃을 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룬다면, 도전, 고난 그리고 극복이 어우러져 평생 살아가며, 자신감과 이타심으로 자신은 물론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줄로 안다.

그렇기에 해군 특수부대(Navy Seal)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만 년 전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여 정상에 천지가 생기고 개마고원이 형성되었다. 해발 700-2000미터 면적 4만 평방 킬로 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이다. 기가 막힌 풍경을 자랑한다. 겨울에는 섭씨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섭씨 15도의 선선한 날씨이다. 북한에서 백두산 구경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높고 방대한 위용을 뜻하여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했고, 사람 살기 힘든 오지였기 때문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삼수갑산(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니 삼수갑산이 어디뇨. / 오고 나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山) 첩첩이라 아하하 /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 삼수갑산 멀다더라 아하 축도 지난(蜀道之難)이 예로 구하 아하하 /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 오다가 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 내 고향을 가고 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 불귀(不歸)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 <신인문학 (1934)>



삼수와 갑산은 함경남도 개마고원에 있는 산골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유배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화산재로 형성된 개마고원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잘 자랐다. 부천강, 장진강, 허천강이 압록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다시 말하면 개마고원을 압록강 쪽으로 가면서 낮아지고 동해 쪽으로 가면서 높아져서 개마고원에 내린 비와 눈 녹은 물은 압록강으로 흘러서 서해로 빠진다. 동해 쪽은 함경산맥(부천령산맥)이 해안을 따라 동서로 달리고 있다.

동경제대 전기과 출신 바로 모리타는 이 세 강의 물을 북쪽에서 막아 압록강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저수지를 만든 다음 높은 부천령 산맥에서 동해로 흐르게 하여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장진호가 탄생했다. 1926년에 만들어진 조선 수전 주식회사는 1944년까지 무려 24개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1,723,910 킬로 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다. 그의 동급생 노구치는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을 건설했다. 물론 농사에 비료도 필요했지만 부산물로 폭약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장진호 등 개마고원의 수력 발전은 흥남에 공업지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거대한 호수는 개마고원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미국이 후버 댐을 건설하여 라스베가스를 만들어 냈다면 일본은 개마고원에 댐을 건설하여 흥남 공업지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장진호 전투**

해방 후에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개마고원 장진호 지역은 관광, 여름 피서지 그리고 흥남 공업 지대의 에너지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했던지, 중공군, 미군, 유엔군, 국군의 피를 얼리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여름에 낙동강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전쟁은 겨울에 장진호에서 젊은이들의 피를 공공 얼어붙게 했다.

뉴욕과 비슷한 위도 상에 있지만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북극 같은 추



은 기 철(71, 남가주)

위가 닳쳐온다. 최저 기온이 섭씨 영하 30-45도까지 내려간다. 여기에 거센 바람까지 몰아친다. 야전삽으로 땅을 파면 땅이 공공 얼어붙어서 삽이 부러졌다. 강통 속에 폭약을 넣어 땅속에서 폭발시켜 참호를 만들었다. 작업을 하면 땀이 나고 곧 땀이 얼어서 죽는 병사들이 있었다. 옷을 벗어가며 작업을 해야 했다. 낙하산에서 보급품이 얼어붙은 땅에 떨어지면서 부서지는 일이 허다했다.

너무나 추워서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 엠1 칼빈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래도 엠1 그랜드는 쓸만했다. 차량은 2시간마다 시동을 걸어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뢰도 작동하지 않았다. 대포도 불발이 되는 때가 많았다. 배데리가 약해져서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다. 통조림이 얼어붙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추운데 설사병까지 번졌다. 강추위에 설사 없이 엉덩이를 까발리고 일을 보는 고역을 겪어야 했다. 미군들은 겨우 투시(초콜릿 사탕류)를 먹고 연명했다. 혈액과 모르핀 등은 얼어서 쓸 수가 없었다. 추운 날씨는 중공군과 미군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다. 중공군은 심각한 보급 문제를 겪고 있었다. 얼어붙은 감자를 먹어야 했다. 설사병은 중공군에게도 퍼졌다. 눈에 얼드려 있다가 그대로 얼어 죽는 중공군 부대도 있었다.

**원산 상륙작전, 맥아더와 정일권**

1950년 9월 29일, 맥아더는 서울 환도 직후 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이 해군 제독, 워커 8군 사령관, 알몬드 10군단장 등에게 또 다른 상륙 작전 계획을 밝혔다. 원산 상륙작전이었다. 이미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점령한 미 해병 1사단과 10군단 병력을 인천에서 원산까지 바대로 이동시켜 원산에 상륙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쟁의 총지휘권은 맥아더 자신이 가지고 동쪽을 담당하는 상륙 병력은 아몬드 중장이 지휘하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진격하는 8군은 워커 중장이 지휘한다고 선언했다. 원산에 상륙한 병력은 원산에서 서쪽으로 진격하여 평양을 8군과 합세해서 공격한다는 작전이었다.

맥아더는 적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을 이해한 다음에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작전 계획을 짜 놓고 그 작전 계획에 맞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반복했다. 과대망상적인 자기 과시에 비롯된 과오였다. 가짜 옥수수 담배대를 물고 선글라스를 낀 채 상륙선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미국 시민들을 매료했다. 그는 신문기자들과 만나서 그의 작전 계획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소련과 중국은 미군이 어떻게 중공군을 공격할지를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자기 과시에 눈이 어두운 우매한 결과였다.

일본은 물론 전 아시아의 최고 권력자였던 맥아더를 거역할 장군은 아무도 없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서울이 수복되자, 미국 국민은 그에게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다. 그는 기고만장했다. 해병 1사단과 10군단 병력은 10월 6일 인천을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835 해리를 항해해서 10월 19일에 원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10군단 7사단은 육로로 부산으로 가서 원산 앞바다에서 합류했다. 좁은 인천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떠나는 병력을 배에 싣고, 8군 군수물자를 하역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했다.

미군이 원산에 상륙할 것을 알고 있었던 소련은 원산 앞바다에 3천여 개의 기뢰를 깔아 놓았다. 당시의 기술로는 기뢰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군과 국군의 소해함과 8척의 일

본 해군 소해함까지 동원해서 기뢰를 제거했다. 작업 도중 미군 소해함 두 척과 국군 소해함이 침몰되었다. 소련군이 기뢰를 설치할 때 웅도 섬 주민들에게 위치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상륙 병력은 군함을 바다에 세워 놓고 기다릴 수가 없었다. 울릉도까지 12시간 걸리는 항해를 반복하면서 일주일을 견뎠다. 그들은 이것을 요요 항해라고 비아냥댔고 병사들은 뱃멀미에 시달렸다.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의 명령으로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어 양양을 점령했다. 이날이 국군의 날이 되었다. 10일 만에 원산을 점령했다. 이미 아군에게 점령당한 원산에 상륙 작전을 벌린다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었다. 맥아더는 흥남으로 상륙지를 변경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련은 이미 흥남 앞바다에도 지뢰를 깔아 놓고 있었다. 미군은 10월 26일 경에 원산에 상륙했다. 물론 아무런 저항이 없는 행정 상륙이었다.

한편 서부전선의 국군과 미 8군은 10월 19일에 평양에 입성했다. 21일에 평양비행장에서 점령 축하 열병식이 거행되었고 10월 30일에 평양시민 환영식에서 이승만이 압록강 물이 담긴 수통을 선물로 받았다. 원래 작전대로라면 원산으로 들어온 해병 1사단과 10군단 병력이 8군과 같이 평양으로 진격해야 했었다. 그러나 두 병력의 엇박자 복진과 중공군의 개입은 이 작전 계획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향후 서쪽의 미 8군과, 동쪽의 미 해병 1사단과 10군단은 각각 압록강 쪽으로 복진했다. 이들 사이에는 낭림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들 사이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졌다. 보급도 따로따로 해야 했다. 산은 점점 험악해지고 길은 외길이 되어 갔다. 병력은 아예 한 줄로 서다 시피 했다. 트럭, 전차, 포 등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이 점점 움직이기 힘들어졌다.

**중공군의 전략**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인해전술로 중공군이 국군을 물리쳤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듣고 자랐다. 마치 수백만 명의 중공군이 수만의 유엔군과 국군을 압도한 것처럼 믿고 있었다. 처음 압록강을 넘어온 중공군 병력은 약 15만이고 복진한 유엔군은 약 20만이라고 한다. 전쟁 시기에 따라 총 병력 숫자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양쪽 병력 숫자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러면 왜 ‘인해전술’이라는 말이 퍼졌을까? Fehrenbach는 그의 저서 ‘This Kind of War’에서 어떤 시기에 동원된 중공군의 총병력은 3십만 명 정도였지만 실제로 유엔군과의 전투에 참여한 병력은 6만에 불과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 줄로 서서 복진하는 유엔군과 싸우는 데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군이 직면하는 중공군의 숫자는 전투할 때마다 월등하게 많았다. 한두 개의 기관총이 수백 명의 중공군을 상대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을 것이다.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 쏘아도 쏘아도 끊임없이 달려드는 중공군이 사람이 이룬 바다처럼 보였던 이유이다.

유엔군과 국군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북으로 진격하고 있는 동안 벌어진 사이

로 중공군이 산 능선을 타고 들어올 수 있었다. 양군의 연락을 차단했다. 미군이 중공군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던 반면에 중공군은 미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맥아더의 잦은 기자회견은 작전 계획이 중공군에게 누설되는데 한몫했다. 미군은 차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산비탈 길을 일렬로 서서 북으로 올라왔다. 중공군은 도보로 산 능선과 언덕을 타고 내려와서 올라오는 미군을 거꾸로 세운 V자로 속으로 유인했다. 낮에는 V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밤이 되면 포위 공격했다.

중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기 박물관 전시장 같았다. 소련과 중국에서 만든 무기 외에 영국, 미국제 무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병사들 모두가 소총을 소지하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병사들은 수류탄만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다. 앞에서 전사한 병사의 소총을 주워서 사용하기도 했다. 중공군은 미군의 보급 창고를 공격하지 않았다. 창고 안에 있는 탄약과 먹을 것들은 그들의 부족한 보급을 메워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에게는 계급이 없었다. 장교들은 조그마한 배지를 달아서 구분했다. 전 병력에게 공평하게 작전 계획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병사들도 사단의 작전 계획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미 해병대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와**

**미 육군 10군단장 에드워드 아몬드**

미 해병대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군사 작전 교본에 충실하게 따르는 명장이었다. 반면에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은 전투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달에 눈이 어두워 맥아더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다. 해병 1사단은 10군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스미스는 아몬드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11월 3일, 미 해병대 1사단 7연대는 원산에서 함흥을 지나 수동리에 도착하자 중공군 124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이 중에는 344 인민군 전차 부대 잔존 부대가 있었다. 이들은 평양에서 퇴각하여 중공군과 합류했다. 중공군 사단장 쑹수룬은 ‘만세 돌격’을 감행했다. 병사들이 미군의 사격에 파리 목숨처럼 죽어 나가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모한 작전이었다. 철저한 훈련을 받고 이미 한국전에서 경험을 쌓은 미 해병대에게는 너무나 쉬운 상대였다. 더구나 포병과 공중 지원은 중공군의 화력을 압도했다. 이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중공군 124사단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미군 해병 1개 연대가 중공군 1개 사단을 섬멸한 전과였다. 연대 병력 약 3천 명 중에 전사자는 단 50명, 부상자는 200명이었다. 중공군 사망자는 1,500명 부상자는 이 두 배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로 중공군 124사단은 한국전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수동리 전투에서 포로가 된 중공군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 주었다. 그러나 맥아더 극동사령부 정보 과장 Charles Willoughby 소장은 북한에 들어와 있는 중공군은 3만 명 정도라고 맥아더에게 보고 했다. 윌러비는 아몬드 소장과 같이 맥아더에게 아첨하는 부류의 장군이였다. 맥아더는 대규모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을 완전히 점령할 계획이었다. 윌러비는 맥아더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중공군 3십만 명이 북한에 들어와서 미군을 포위하고 있었다. 낙동강 전투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해병대를 투입했고, 이들은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해냈다. 잘 훈련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 해병대는 장진호 전투에서도 세계 제일의 막강한 병사들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11월 25일에 미 해병 1사단은 수동리-진흥리-(황초령)-고토리-(다음면에)



# 봄을 위한 목관 5중주



서 양(69, 대뉴욕)



## 2 악장 - 봄비의 반란

봄비의 숨결이 거칠다 조그만 사각형을 클릭하면 쇠기 모양의 체크마크가 고개를 치켜드는 내 컴퓨터 모니터에 봄비가 줄줄 내린다 봄비가 아프다 봄비는 순순히 자연의 법칙을 따를 뿐 당신은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지 않다고 속삭인다 소프트웨어를 받아드리는 기본방침에 동의하는 봄밤에 봄비의 숨결이 깊어진다 봄비의 잔물결이 참 좋아요 봄비의 어깨가 체크마크 모양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불현듯 치솟는다 나를 한사코 거부하듯 봄비가 지붕을 탕탕 때리는 봄밤이면



## 4 악장 - 맨해튼 봄바람

봄바람 부는 날  
쪽배에 탄 채 강물에 떠내려 갔지요  
물결도 내 몸도 내내 가벼웠어요  
등등 떠내려 갔지요  
  
맨해튼은 가벼운 섬입니다  
맨해튼은 생김새가 꼭 고구마 생김새예요  
맨해튼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모두  
얼굴이 고구마 모양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목 언저리를 자꾸 파고드는 날  
당신과 내가 수소, 산소, 질소, 탄소가 되어  
하늘에 등실등실 떠다닙니다  
맨해튼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봄바람이 연거푸 불어오는 날이면



## 1 악장 - 싫어도 봄이라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지  
육중한 얼음장 바닥에서  
아앗! 뜨거워라, 땀이며 광대뼈며  
삼각형으로 다림질 당한 단풍잎들이야  
죽건 말건 정이월 춘삼월 내내  
진눈깨비 끼리끼리  
순 지들 맘대로 난동을 부렸다는 식이지  
동네 수양버들 능수버들  
갓난애기 젖비린내 냄새 난다  
딩, 둥! 하는 섬세한 손가락이며  
겁난다 언덕길을 스치는 미끈한 엉덩이  
싫다, 싫다! 외면해도 한 번 더 붙자는 식이지  
느지막이 도착해서 내 앞에 서는 봄  
뻘뻘스럽기 짝이 없는 봄



## 3 악장 - 너무나 잠시예요

맞아요 봄이 너무 짧아요  
거친 숨을 죽이면서 배로 호흡하는  
유년과 성년의 틈새처럼  
양지 바른 웅덩이 미지근한  
흙탕물에 질주하는 올챙이 떼처럼  
무례한 사춘기처럼, 무례한 사춘기처럼  
선잠에서 깨어난 깨알만한 풀꽃 씨앗과  
다리가 부러질 듯한 사슴들이 춘곤증에 시달려  
얼떨떨해하는 동안 내 걸을 훌쩍 지나치는 봄!  
파도 치는 여름보다 코끝 빨개지는 겨울보다  
앞가슴 실밥이 뜯어져, 앞가슴 실밥이 탁! 뜯어져  
마음 상하는 가을보다 훨씬 더 짧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바람 부는 아침에  
앞산 뒷산이 발각 뒤집히는 이 봄이  
너무나, 너무나도 잠시라는 게



## 5 악장 - 봄이 나를 버리고

매년 봄이면 손짓하고 꼬리치고 싱그러운  
들판을 함부로 뛰어다니며 봄을 유혹하다가  
덜컥 변덕이 나서 내가 먼저 달콤한 작별을  
고하기도 하는 줄로 예사로이 알았는데 //  
매년 봄이면 나무들이 벌건 대낮에도 몸에  
꼭 끼는 초록색 야회복을 입고 루비며 진주  
목걸이를 달랑달랑 걸친 그 모습에 고만 질  
려서 내 뺨 뿜린 시야를 앞지르는 게 정말  
미워서 녹진녹진한 앞마당 밖으로 내가 먼  
저 봄을 쫓아내는 줄로 참 예사로이 알았  
는데 // 이제 나 봄 정원 귀퉁이에 하나의 돌멩  
이가 되어 좀 긴장하며 눈 감은 채 가만가만  
누워있고 봄이 순 지 마음대로 이상한 요술  
을 부리다가 불시에 나를 버리고 훌쩍 떠나  
겠다는 데야, 이제 나는

<전면에서 계속> 하갈우리에서 장진호 서쪽에 있는 유담리에 도착했다. 하갈우리에서 장진호 동쪽으로 가면 후동리이다. 미 해병 1사단은 서쪽 미 8군의 우측에 중공군이 끼어들지 못하게 유담리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미 8군과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월 27일 미 8군은 이미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후퇴하고 있었다. 하갈우리 우측(장진호 동쪽)은 7사단 31 연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스미스 소장은 중공군 주력 부대가 아직 북한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정보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맥아더의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무작정 빠른 속도로 북진하는 작전을 크게 우려했다. 북한의 지형 때문에 병력이 한 줄로 늘어선 포위되기 쉽고 수적으로 항상 아군보다 많은 병력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급을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병력을 진격시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추운 날씨에 방한복조차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병을 동원하여 하갈우리에 활주로를 건설하게 했다. 곳곳에 보급기지를 설치하였다. 진격을 가능한 한 천천히 했다. 하루에 1.5킬로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몬드(의 재촉을 무시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황초령의 다리가 파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중공군이 미군을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했

다.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다리를 파괴했어야 했다. 그는 중공군 포로로부터 중공군이 미군을 포위하여 섬멸하려 한다는 정보를 귀담아들었다. 진흥리와 고토리에 각각 대대 병력을 남겨 놓고 전 사단 병력이 지프로 한 시간 거리 이내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킬로에 사단 병력이 늘어서 있었다. 아몬드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미 해병 1사단의 선전**  
서쪽 청천강에서 압록강 쪽으로 북진하고 있는 미 8군보다 이를 늦은 11월 27일 동쪽 장진호의 미 10군단과 해병 1사단에게도 크리스마스 대공세 명령이 떨어졌다. 한 달 안에 북한을 멸망시켜야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쉴 수 있었다. 맥아더와 아몬드는 북진을 재촉했다. 해병 1사단 5연대는 88킬로 떨어져 있는 서쪽의 8군과 연결하기 위해서 낭림산맥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미 8군은 11월 26일에 예상 밖의 중공군의 2차 공세로 곤경을 겪고 있었다.

11월 25일에 유담리에 도착한 미 해병대 1사단 7연대는 중공군 3명을 포로로 잡았다. 한국군 통역관과 한국 경찰대가 심문을 했다. “중공군은 이미 6일 전에 장진호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유담리와 하갈우리 사이의 도로, 하갈우리와 진흥리 사이의 도로를 차단할 것이다. 공격시키는 미 해병 2개 연대가 덕동

고개를 통과할 때고 미 항공기의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공격할 것”이라고 상세히 알려 주었다.

11월 27일 중공군은 유담리 북쪽에 79사단, 유담리 서쪽은 89사단, 유담리 남쪽 신희리 근처의 59사단이 유담리에 있는 미 해병 5, 7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장진호 동쪽 후동리 북쪽에서 중공군 80사단은 미 10군 7사단 31연대와 32연대를 포위하고 있었다. 중공군 9병단장 송수린은 미군 모르게 밤에만 이동시켰다. 미군은 이들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중공군은 동경에서 맥아더 사령부가 마스크를 통해서 발표하는 뉴스만 들어도 미군의 작전 계획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장진호 서쪽과 남쪽의 미 해병 1사단은 중공군의 동태와 그 의도를 대강 짐작하고 있었고 사단장 스미스의 용의주도 한 작전 계획으로 중공군의 포위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였다. 반면에 장진호 동쪽의 7사단 31연대와 32연대는 지휘관의 무능과 병사들의 훈련 부족으로 인한 졸렬한 전투를 벌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퇴했다.

11월 27일 밤 중공군은 나팔과 피리를 불고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 들어왔다. 이미 포위당하여 전락상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미 해병은 방어진지를 크게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5연대와 7연대는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방어진

지를 축소하고 서쪽으로 진출하여 8군과 만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무모한 돌격적인 공격, 미군의 우세한 화력과 공군력은 중공군 10명이 죽으면 미군 1명이 희생되는 비율로 중공군의 피해가 월등하게 많았다.

미 해병은 높은 곳에서 병력의 이동을 감제할 수 있는 터키 힐과 폭스 고지를 중공군에게 내주지 않았다.

11월 28일 스미스 미 해병 사단장은 5연대는 유담리를 지키고 7연대는 유담리에서 하갈우리로 통하는 도로를 확보하며 1연대는 고토리에서 하갈우리로 가는 도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의 후퇴였다. 맥아더와 아몬드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늦었다더라면 미 해병 1사단이 온전하게 후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 밤 중공군은 하갈우리를 공격했다. 하갈우리에는 해병 1사단 본부를 비롯한 각종 병과의 본부가 있었다. 공병대는 활주로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있었다. 중공군은 의외로 전투보다는 보급품 약탈에 열심이였다. 수많은 중공군 병사들이 죽었다. 그들은 동상 때문에 피부가 육포와 같았다. 중공군은 미군 시체에서 옷을 벗겨 갔다. 미군들은 준비한 공공 열은 동태와 같은 중공군의 시체를 참호의 모래주머니 대용으로 사용했다.





김창남 (69, 뉴저지)

간밤에 비가 왔다 보다. 유리 창에 물방울이 맺혀있다. 시야를 가로지르는 공항도로, 아스팔트 물기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들이 일렬 횡대 흰빛으로 정열해 있는 것이 호텔 창문에서 유난히 눈에 띈다. 걸어서 길만 건너면 출국장. 잊지 않아 시내 호텔에서 여기 공항 힐튼호텔로 온 건 참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랩탑은 뉴욕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일요일 저녁 열시, 뮌헨 시계로는 아침 네시다. 비행기는 아홉시에 이륙이다. 뮌헨에서의 마지막 몇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다시 올까? 누가 알랴. 지난밤 맥주 500 밀리짜리 머그 두 잔에 하루의 피로가 겹쳐 샤워는 하는 등 마는 등 그대로 골아 떨어졌었다. 지금은 맑은 기분이다. 새벽처럼 맑다

뮌헨은 아름다운 도시로 내 마음에 남을 거다. 깨끗하다. 거리는 살아있다.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거리엔 악사들, 솔로, 그룹, 기타, 북 등등으로 각종의 음악이 연주되고 그 연주의 둘레로는 구경꾼들로 크고 작은 半圓이 그려진다. 마이클 잭슨의 댄스를 보여주던 흑인 그룹에 동그렇게 모여 에워싼 원이 제일 컸다. BierGarten(beer hall)은 밤늦게까지 왁자지껄 웃음소리로 소란스럽다. 테이블은 흐린 비어로 젖어있다. 소탈하고 허세 없어 보인다. 너무 감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도회적이지도 즉 까바라 지지도 않았다. 뭐야? 실제와는 동떨어진 내 感傷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지금은 용서하자. 마지막 남은 몇 시간, 감상에 잠긴들 어떠리. 밸런스가 잘 잡힌 단정한 도시 그런 도시로 내 마음에 남을 뮌헨. 호텔 프런트 데스크 걸, 리오나를 잊지 못할 거다.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한국)본토 발음(?)으로 그렇게 유창하던 리오나의 동료 테레시오도 기억할 거다. 어디서 배웠니?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어요”와라 붙잡고 껴안아주고 싶었다. 오호 애재라. 그녀는 카운터 저쪽에 있었던걸. 호텔 사우나에서 만났던 루이스도 잊지 못하리라. 좁은 사우나 룸에 들어오자마자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스트레칭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한마디 건넌 게 긴 대화의 시작이었다. 스트레칭의 중요성, 요가, 김정은, 트럼프에 대해 얘기했다. 다음날 아침 프런트에서 리오나가 간단한 요가 연습의 지침이 그림으로 그려진 프린트 두 장을 내민다. Luis 씨가 전해달라던데요. 어젯밤 얘기 재미있게 나누셨더군요. 종이를 한 장 달래서 내 이메일 주소를 적고 몇 자 끄적인다. 그닥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으면 시실리의 여행에 대해 한마디 소식 전하라고. Luis 가족과 다른 두 카플이 시실리의 빌라를 일주일 빌렸다고 했었다. 할까? 아마 안 할 거다. 워싱턴 D씨의 변호사라 했다. 파킨슨 초기의 진단을 받고 요가며 운동을 시작했노라고 울근 불근 근육을 자랑한다. 휴가지에선 모두가 느슨해지나 보다. 트럼프는 싸이코패스라고 단언을 하는가 하면 자기 마누라는 노름을 좋아한다는 얘기까지 한다.

Oktoberfest(시월 축제)는 바바리아(Babaria)의 自負고 긍지다. 바바리아는 독일에 흡수되기까지 왕국이었다. 지금은 독일에서 제일 큰 주, 그 州都가 뮌헨이다. 뮌헨은 몽크(수도사)의 마을이란 뜻이란다. 묵고 있는 호텔에서 지하철로 두 정거장만 가면 축제의 현장에 이르게 된다. 가까운 두 정거장,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경험 삼아 지하철을 타보기로 한다. 이 지하철역은 메인 허브, 입구부터 붐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빠르게 끼어서 빨려 내려간다. 얼굴이

이미 벌겍 하게 취한 젊은이 엇갈리며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허리를 굽히고 목을 길게 내 쪽으로 빼 온다. 그 눈에 느끼함을 끼기엔 너무 젊은 童顏의 청년이다. 뭐야 이색인종이라고 시비를 거는 건가? 아니다. 축제 중 이색인종은 거부감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자부심을 부추긴다. 먼 데서까지 와 주셨어! 젊은이의 목은 바로 내 뒤의 금발의 젊은 여자를 겨냥한 거였다. 축제 중엔 이걸 癡漢이라 하지 않고 靑春이라 하고 예의라 한다. 묘령의 여인에게 아무런 제스처도 없이 지나가는 건 무시이며 무례, 도리가 아니다. 내가 어때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냐? 삼처발을 일이다. 예의 바른(?) 젊은이와 금발의 여인, 이렇다 할 일은 치르지 못한 채 두 에스컬레이트는 엇갈렸다. 하지만 두 영혼의 가슴은 잠시 뛰었을 거다. 이 아니 아름다운가! 지극히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축제의 에센스 중의 하나 이리.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밋밋하리, 사는게. 지하철은 콩나물시루다. 두 정거장 밖에 안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축제 장소 입구에선 짐 검사를 한다. 아내가 들고 간 토트백이 걸렸다. 포도 카피 페이퍼보다 큰 소지품은 입장이 거부된다. 손짓으로 저기 야외 수하물 보관소에 맡기란다.

공중에 매달린 OKTOBERFEST(시월 축제)란 대형 아치 밑으로 밀려간다.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축제에 참석한 거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들이 흘러간다. 큰 에너지의 흐름이다. 나는 흐름의 한복판에 있는 거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저 밀려간다. 우리 사는 게 이런 거겠지.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저 밀려가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逸脫을 위해 나왔다. 일 년 동안 기다리다 나왔다. 일 년 동안 축적되어온 놀려 지내던 에너지가 축제 중 불타오르리라. 양쪽으로 소위 텐트란 것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다. 걸어서 보기엔 스트립 물에서 보는 건물들의 인상이다. 영성하지만 그런대로 페스티벌이라는 일회성 행사에 어울리는듯싶다. 각 맥주회사들이 각자 텐트 -이 멀쩡한 건물들을 왜 텐트라고 부르는가? 향연장이란 의미가 혹은 애초엔 진짜 텐트에서 시작했다는 얘긴가?-를 보유하고 있다.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밴드와 고성방가와 그리고 맥주. 남자들은 無視 아닌 예의를 차릴 테고 여자들은 새침을 떠는 척하며 가슴은 크고 작은 흥분 상태를 오가리라.



저만치 Hofbrauhaus 텐트가 보인다. 호프브로이하우스의 직역은 궁정 양조장이다. 궁정(hof, court)이란 접두사는 이 양조장이 바바리아 왕국의 궁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란단다. 호프브로이하우스는 뮌헨의 대표적인 Biergarten(beer hall)이다. 시내 한복판에 있다. 한꺼번에 3600여명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고 바블 땀 하루에 30,000명이 드나들며, 40000 리터의 비어를 판다는 게 두 시간짜리 투어 가이드의 말이였다. 호프브로이하우스를 들리지 않고 뮌헨에 갔었다 하지마라 라는 말까지 있단다. 이런 事前 지식이 없이 호프브로이하우스에 들리는 모험을 감행했었다. 조심스레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간다. 모두 바빠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 고객이 왔으면 누군가 와서 자리로 안내하는 게 원칙 아닌가? 보통과는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낮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다. 발걸음의 속도를 잠시 늦춘 웨이터를 쫓아내 가로채 어디 앉는 거냐고 묻는다. 여기저기 빈자리를 턱짓으로 가리키고는 별걸 다 묻는다는 듯한 통명스런 표정으로 제 갈 길로 가버린다.

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의 첫 한 모금의 맥주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하리라. 뮌헨에서 아니 독일에서의 첫 맥주! 마침 목이 말랐던 탓이겠지? 사실 한 모금은 아니다. 1000cc짜리 저그를 마치 사발의 냉수 마시듯이 벌컥 벌컥 들여마셨으니. 그 시원함이라니. 그만 나는 맥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단박에 깨달아 버리고 만다. 이거 로구나! 병 맥주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엇, 아마 잡힐 수 없는 것이기에 잡히지 않는 것이리라. 모름지기 깨달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닐까? 하, 하. 내 깨달음의 기억, 뮌헨에서의 첫 맥주 맛은 좀처럼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왜냐? 그 기억이 내 뇌리에 문신처럼 지울 수 없게 새겨졌기 때문이라기보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 오도기 悟道記를 두고두고 득도하신 스님처럼 자랑할 테니까. 하여 내 기억은 끊임없이 강화 확대 재생될 테니까.

비어는 대충 4-6%의 행복(?)을 지닌다. 그 행복은 스스로가 똑똑하고 영리하며 워트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수반한다. 오기도 덩달아 나선다. 어디서 오셨소? 금방 막 옆자리에 앉고 있는 커플에 묻는다. 간단한 審問(?) 끝에 캘리포니아에서 왔으며 신혼여행 중, 오늘이 두 번째, 어제 왔었다 등등의 사실을 밝혀낸다. 다음날 두 번째의 신혼여행 카플을 만나게 되는데 뮌헨이 신혼여행 카플들의 행선지 중의 하나란 말인가? 혹은, Oktoberfest 때문인가? 나는 사내다운(?) 주먹 인사(fist bump)로 그들의 신혼을 축하하기로 한다. '실없는 내 농담 사이로' 깃누런 튜바(tuba)가 저쪽에서 욱망처럼 번들거린다. 그렇다. 이 호프브로이하우스에선 브라스밴드가 본능이랄까 욱망이랄까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것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뽀뽀 뽀뽀! 좀 요란스럽게.

그제였다. 호프브로이하우스 비어가르텐에 갔던 게. 그 호프브로이하우스가 여기 텐트를 차리고 있다. 텐트의 내부는 Biergarten과 아마 큰 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아니다. 웹사이트에서 본 텐트 안은 미려스레 넓었고 울긋불긋 좀더 자극적인 색깔들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서 바바리아 전통의상을 입은 여인이 벌렁 뒤로 넘어질 듯 제껴지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원초적인 것의 접근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듯 보였다. 괜찮아, 내려와! 이때까지 쓰던 가면 내려놓고 이때까지 감추고 있던 본래 얼굴 내놔!

사람들 흐름의 가장자리에 각종 먹거리 집이 널려있다. 크레프 집에 들러 사과가 든 크레프, 접시만큼 커다란 바바리안 도넛을 사서 아내와 나눠먹는다. 커피까지 한잔 끼운다. 흐름은 끝이 없다. 호텔에서 만났던 조지아 대학 삼학년짜리 여학생, “아침 일곱시에 나와서 오후 두시가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섯 시간까지 기다릴 열정은 없으니 결국은 텐트엔 도달하지 못한다. 카프가 城의 주인공 K가 끝내 성에 이르지 못하듯이. 예약이 안 돼있는 거다. 유히 없이는 못 들어간다. Hofbraugarten 비어홀의 기억과 웹페이지 이미지들로 텐트를 대신하기로 하는 수밖에 없지?

호텔에 돌아오니 리오나가 반갑게 맞는다. 우리는 이미 친한 사이다. 도착하는 날 저녁 열 시나 됐을까 핸드폰의 충전 케이블을 안 가져온 걸 침대에 들기 직전에야 알아낸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외계와, 두고 온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 화성이라도 온 듯 외롭고

# 소뽀

김영희

물과 소뽀 넣은 냄비에 불을 붙쳐  
오랜시간 세 번 네 번  
물속에서 끓여 단련하니  
담백한 우유빛이 된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 힘을 준다.  
한국 사람에게 뽀심을 실어 준다.

갈비뽀 조각 속에서  
꼬리뽀 조각 속에서  
소의 얼굴이 보인다.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다.



이건일(68, 동문 부인)

무서울 거다. 프런트 데스크에 내려간다. 리오나, 이 우주 迷兒의 공포 어린 눈빛을 보곤 동정이 가득한 눈길로 역에 가보란다. 전자기기를 파는 상점 아직 열었는지 모른다. 역은 호텔에서 길만 건너면 된다. 케이블을 사들고 오며 의기양양 그 안도의 마음이라니 이번 여행에서 그중 좋았던 순간의 하나이리라. 리오나에게 오늘 저녁 살인사건을 방지하게 된 걸 축하한다고 한다. 의아한 눈으로 쳐다본다. 충전 케이블 안 챙겼다고 아내가 나를 살해할 뻔했다고 하자 농담을 알아듣곤 화답할 웃는다. 피곤할 테니 사우나를 앉겠느냐? 룬더리 백 같은 것을 준다. 까운이며 타월 등 사우나에서 쓸 용품들이 들어있다. 특별 대접이다. 우리는 핸드폰 충전 케이블로 맺어졌다.

그 리오나가 어땠어요 묻는다. 피곤하다고 한다. 축제의 경험을 피곤하다는 한마디로 밖에 요약할 수 없다니 딱하다. 몇 시간이고 기다린다는 그런 열정, 나를 떠난 지 오래고, 금발의 여인에게 목을 빼보는 예의도 못 차려 보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축제에서 고작 크레이프 한 개로 발길을 돌렸다는 말은 생략한다. 리오나가 주는 사우나 백을 들고 사츄 사우나 룸으로 향한다. 충동적으로 나온 여행이었다. 옥토퍼웨스트,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맞선이 지상 최대라는 축제, 텐트에 들어가 보지 못한 아쉬움을 어찌랴.

간밤에만 비가 온 게 아니다. 지금도 오고 있다. 뮌헨이어 “나 이제 가노라. 아쉬움 남기고 저 넓은 광야,” 나의 일터로. 여행지를 떠날 때면 꼭 다시 와야지 하는 마음이 들곤 했다. 이젠 “다시 못 오지?”하는 생각이 더 든다. 비가 와 선가? 아니면 다시 못 올듯 싶은 뮌헨과의 정 때문인가? 생각이 축축해진다. “압록강은 흐른다”의 주인공이 독일에 온 지 다섯 달 만에 처음 받은 큰 누이의 편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편지 생각이 아무 맥락 없이 떠오른다. 뮌헨 교외 어딘가에 묻혔다는 저자 이미득. 그 책의 끝 끝까지 뽀. 군더더기 없어서 더 눈물나던. 뮌헨대학 다녔다는 검은 머플러의 여인 전해린도 떠오른다. 뮌헨에 관련된 잡다한 기억들이 밀려든다. 전해린 (혹은 하인리히 뽀)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도 떠오른다.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더 축축해지기 전에, 노인장 감상에 잠길 나이는 지나지 않았소? 내 나이가 어때서 감상에 잠기기 딱 좋은 나인데!





# 내가 겪은 4.19

이 회 백(61, 시애틀)

1960년 4월 19일 나는 서울의대 졸업반이었고 임상 실습중이었다. 그 전날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데모를 벌였다. 실습 중이던 나는 고려대학이 거리에 나와 싸우는데 서울대는 뭐 하는가 하는 수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서울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이려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가운을 벗어던지고 대학병원을 나와 종로로 향했다. 거리는 데모대로 꽉 차 있었다. 종로에서 우로 돌아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 종로와 광화문이 마주치는데 도달했다. 거기서 데모대는 왼쪽으로 돌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파와 우로 돌아 중앙청으로 향하는 두 파로 갈라졌다. 나는 모든 게 이승만 탓이니 그가 있는 경무대(경무대가 청와대로 이름이 바뀐 것은 4.19 후 윤보선 대통령 때)로 가 그와 따지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고 이 길을 택했다. 중앙청에

서 좌로 돌아가다가 다시 우로 돌아 북쪽으로 향했다. 이때 군중이 잡아탄 전차가 경무대로 가는 앞장을 섰다. 북으로 향하던 군중은 다시 우로 돌아 경무대 쪽으로 향했다. 나도 거기에 끼어 경무대 정문을 바라보고 가던 중 갑자기 쾅 뚫듯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나보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쓰러졌다. 나는 얼떨떨해서 우물거리는 찰나 내 바른쪽 무릎이 따끔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쓰러졌다. 경무대로 향하던 군중들이 뒤로 돌아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중에 내가 쓰러진 것을 본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서 두 사람이 내 양쪽 팔을 어깨에 메고 민가로 들어갔다. 놀란 집주인이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나를 쳐다보자 나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신문에서 자주 보는 법무부 장관 李仁 이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택시를 잡아왔다. 그 택시를 타고 대학 병원에 도착했다. X-ray실에 가 다리 사진을 찍고는 즉

시 수술실로 옮겨졌다. 한참 있다가 담당 의사가 와서 “수술은 할 필요가 없으니 병실로 옮겨라”하고는 총알이 관절 사이로 지나가 무릎이 어떻게 될지 관찰해야겠다고 하면서 X-ray를 들고나갔다. 그러는 동안 내 동기생들은 실습하던 하얀 가운을 그대로 입고 ‘들것’을 들고 데모 부상자를 날라오고 이 사진이 크게 신문에 보도되었다. 내가 총상을 당하고 병실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은 동기생들이 내 방에 몰려왔다.

내가 입원한지 며칠째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간호 원장이 병실을 돌아다니며 ‘이승만 대통령’이 부상자를 ‘위문’하러 오니 ‘준비’하라고 말하고 나갔다. 여러 사람이 복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잔뜩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신 몰라나시오!”

그런데 이승만은 나타나지 않고 다시 병동이 조용해졌다. 몇 명이나 부상자를 ‘위로’하고 갔는지는 모르나 내 방에는 들리지 않고 사라졌다.

“이런 죽일 놈이...”하는 욕이 튀어나왔다.

총부리를 쥐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 “우리 형님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마세요!” 하고 국민학교 꼬마들이 울부짖었다.

이승만은 여러 날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침묵을 지키더니 미국 대사 John Muccio가 경무대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날 “국민이 원한다면...”하는 말을 남기고 미군 군용기를 타고 하와이로 향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가에 줄을 섰던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내 병실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오고 갔다. 서울대 교환교수로 와 있던 Glenn D. Paige 교수와도 인터뷰했다. 그중에는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 말고 누가 있소. 뭐니 뭐니 해도 이승만 밖에는”하고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4.19 보상금인가 뭔가 하는 것도 왔다. 나는 전부 사상계에 기부했다.

대학교 학생 ‘지도자’ 중에는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도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 그리고 시민은 제 자리로 돌아갔다. 심지어 거리 청소까지 맡김히 한 후, 이게 61년 전에 내가 겪은 4.19다.

- 2021년 4월 19일.

스물일곱 세가 된 젊은 동양인 여자 한자가 진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영어밖에 못하는 것으로 봐서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차트를 보니 제니퍼 롱이라는 전형적인 미국 이름이다.

“제 뺨에 있는 이 까만 점이 흑시 암이 아닌가요?” “글쎄...,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부위가 가렵거나 점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흑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피부 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질문에 그녀가 대답한다.

“선생님, 사실 저는 어릴 때 입양되어 와서 양부모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흑시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한국에서?” 내가 물었다. “네, 저는 코리아에서 두 살 때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고 남편은 이곳 근처에 있는 정신병자 감호소(State Correctional Facility)에서 간수라고 한다. 아이는 없고 영영 낳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내 진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나도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 저의 한국 이름은 윤수정입니다. 입양 올 때 가지고 온 서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열여덟 살 때 부모를 찾으려고 좀 알아보았는데 제가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 그렇군요 수정, 지금 얼굴에 있는 점은 악성이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로 합시다. 다음 달에 마침 내가 한국에 다녀러 가니까 부모 찾는 일은 그때 알아보시다.”

다음날 그녀는 서류를 가지고 왔다. 입양 기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다. 그 몇 주 후, 나는 예정대로 학회차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주 무덤덤한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서대문에 있는 한 복지기관을 찾아갔다. 사실 내가 시도하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는 그녀의 부모 찾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구태여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이를 버린 부모가 그 비밀을 감추고 살고 있는데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또 찾아낸 부모가 아주 형편이 없는 나쁜 사람이어서 그녀의 상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부모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윤수정 양과의 약속이 생각나서 이처럼 발길을 내디딘 것이다.

우리(손위 처남 동행)를 맞은 담당자는 매우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잘 정리된 서류철에서 한참을 찾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왔다. 아마도 이런 기관에서는 친 부모를 찾는 일이 많은 것이다.



# 입양 온 아이들

그리고 여러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녀는 기록부를 열어 보더니 두 살쯤 된 조그마한 아이의 사진을 꺼내 준다.

“선생님들, 이것이 당시의 아이의 사진입니다. 아이 엄마가 지난 이십오 년간 계속해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있고요. 흑시나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뜻이겠지요. 제가 수소문해서 연락할 것이라고 윤수정 양에게 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을 그녀에게 전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윤수정의 미국 현주소와 이들 부부의 결혼사진입니다. 제 명함도 여기 있습니다. 흑시 도움이 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 방문이 다행히 헛되지 않을 것 같군요. 안녕히 계세요.” 하며 인사를 나누고 나왔다.

나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참으로 기뻐했다. 물론 그녀의 어릴 때 사진도 전해 주었다.

한두 주일쯤 지난 어느 날, 사무실에서 진료를 하는데 간호사가 나를 급히 부른다. “닥터 씨요! 제니퍼 롱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다. 나는 전화를 넘겨받았다. “헬로” 하며 수화기를 귀에 대니까 그녀가 소리친다. “박사님 덕분에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를 찾았어요. 방금 편지가 왔어요. 시진도 있고요.”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편지가 한글로 쓰여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 번역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 후 우리 집으로 남편과 같이 오라고 집 주소와 약도를 알려 주었다. 약 한 시간을 차로 올 수 있는 거리다. 저녁이 조금 지나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쪽이 제 남편 존이에요.” “안녕하세요? 제니퍼한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을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들 앉으세요. 이 사람은 저의 집사람 성자입니다. 결혼 전에 서울에서 선명회에서 일했지요.” 마침 커다란 우리나라 배가 있어서 아내가 깎아 놓고 권했다. “이것이 코리아 원산 배예요, 달고 물이 많아서 아주 시원합니다.” 하면서,

잠시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서울에서 보내온 편지를 볼까요?” 그녀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우리나라 우표가 붙은 누런 봉투가 두툼하다. 그녀가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펼쳐놓는다. 나는 우선 편지를 보았다. 파란 볼펜으로 쓴 한글 글씨다. 필체가 교육을 많이 받은 글씨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얼른 훑어본 글의 내용은 진지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슬펐다. 글을 쓴 엄마가 적신 것인지, 편지를 읽던 딸의 것인지 마른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나는 우선 사진들부터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수정을 임신했을 때 찍은 친정 오빠 등 가족들과 함께 찍은 것, 강원도 동해안 어느 바닷가에서 엄마가 친구들과 찍은 것, 수정의 동생이 되는 젊은 청년과 엄마가 찍은 것, 서울 근교의 엄마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찍은 것 등 일곱 장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한글 편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한 줄 한 줄씩 읽어주었다.

...보고 싶은 내 딸 수정아! 얼마나 너는 이 죄가 많은 엄마를 원망하였겠는가! 이제 나는 그저 할 말이 없구나.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그 옛날 나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너를 낳았을 때 너의 아빠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한테도 임신을 시켜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면서 그쪽으로 결혼을 해 버려서 나는 너를 혼자서 기를 수밖에 없었다. 너를 젖을 먹여 키우고 두 돌이 지난 후 너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미국으로 너를 입양을 보낼 수 있다는 길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수정아 나는 너를 입양 고아원에 두고 온 그날, 아, 안 떨어지려고 우는 너를 이를 악물고 두고 온 날,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동안 말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미국에 가서 먹을 것도 넉넉히 잘 먹고 사랑받으며 잘 살기를 바랐다.

아!, 네가 미국에서 살아 있었구나. 참 보고 싶구나. 나는 한시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언제인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사는 형편이 이제 나아지니 요즘은 더욱 그렇게 되는구나. 수정아! 너에게는 너와는 아빠가 다른 남동생이 있다. 잘 생긴 아이지. 너의 아빠는 그 당시 헤어진 후 너는 소식을 모른다. 아마도 경상도 어디에서 산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래돼서 서로 연락이 없다. 나

는 이 봉투의 주소에서 식당을 하면서 네 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다. 당장 너를 만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지만 우선 영어로도 좋으니 이 편지의 답을 보내다오. 고마운 서 박사님을 통해 전해준 너의 사진을 잘 보았다. 결혼사진에 신랑이 참 잘 생겼구나. 엄마는 너무도 미안하다.

수정아, 용서해다오, 보고 싶은 내 딸 수정아!...

편지를 읽는 내 목소리는 몹시도 떨렸다. 한 구절 한 구절 귀담아듣는 그녀의 동그란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리고 그 이슬은 방울방울이 되어 그녀의 고운 블라우스를 적셨다. 나 또한 중간중간 번역을 중단했다. 우리 모두 같이 울었다. 너무도 슬픈 이 모녀의 사연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가 아직 못 살던 시대, 그래서 국민 모두가 맘을 흘리며 도약하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민을 떠났던 시대, 배고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다.

이들 모녀는 그 후 연락을 계속한 것으로 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내가 한 일이 좋은 것이었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진 매듭을 풀고 그들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식을 일부러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는가. 젖을 먹여 기르고 두 살 반에 한창 재롱을 부리는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했었던 어머니, 그래서 기나긴 세월 몇몇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애달픈 마음만 간직하고 살았던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이 딸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이들 부부에게 ‘어머니’라는 한글을 붓글씨로 써서 사진첩에 넣어서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게는 이제는 못 살지 않는 나라, 잘 살게 된 나라, 남녀평등이 가까워지는 나라 코리아를, 수정 양이 태어난 코리아를 꼭 한번 방문해 보라고 당부했다.

## 입양 온 아이들

서투른 글씨로 쓴 편지에/ 처음부터 미안하다/ 수정아 이 에미를 용서해다오/ 영어밖에 모르는 수정 양에게/ 우리말을 번역해 주는데/ 가슴 아픈 사연에 목이 매어/ 멈추고 또 멈추고/ 눈물이 흘러 함께 옷을 적셨다/ 지난 수십 년 동안 KAL 비행기 타고/ 우유편 빨면서 떠났던 아이들/ 결국 그 뿌리를 찾는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이/ 결국 뿌리를 찾는다

글: 서윤석(68)



들어가는 말:

정신의학은 뇌 과학과 함께 지난 50년 동안 의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온 의학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병은 문화 발전에서 오는 갈등의 산물이라는 설이 알게 모르게 받아들여져 온다. 보이지 않는 병 중에 정신병이 가장 많은 병으로, 현대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할까를 간략하게 다루어 볼까 한다.

왜 정신의학이 변화 무쌍하게 발전해 왔나? 대체로 2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그 하나는 세계대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대전 후의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 생명에 대한 애착과, 전쟁으로 잃은 생명을 넘어서 실존적인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증가함으로써 '적자생존'의 역사를 뒤집는 문화혁명이 온 것이고, 둘째 이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가져다준 인간 본질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뇌 과학의 분야를 넓혀 준 데에 기인했다고 본다.

고전 정신의학, 현대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신력의 부족과 무력함에 대한 반응으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인간성의 정화와 발전을 과학적으로 이루어 보려는 집념이 강하게 인류를 사로잡았다.

2차 세계대전 후 인간은 생존과 실존의 본질을 파악해 보려고 발버둥 치며, 철학의 태두인 소크라테스의 철학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를 따라 각 개인의 정신을 분석해서 의식화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고치면 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정신분석이 가져왔다. 인간 사회의 문화를 분석학적으로 풀이해 보려는 풍조가 문명국가에 수십 년간 휩쓸었다. 그러다 기술과학의 3차, 그리고 4차 혁명이 오면서 모든 문제가 인간 개인에게서 비롯한다는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문화와 사회적 환경의 지배와 생물학적 특성과 한계,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온갖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IT에 매달려 공유하려 든다. 이렇게 남의 도움이 없이 자가 힘으로 해결해보려는 의지와 욕망에 지치다 보면 실망과 자멸을 초래하는 비극을 우리는 현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나는 임상경험과 과학적인 소신을 적으므로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나의 생애에 더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막대한 부의 축적과 소유욕으로 시작한 처참한 세계대 전쟁을 겪은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의심하기에 앞서 기존의 종교, 도덕성, 철학을 재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 건설에 열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인간들은 정신적 타격을 이겨 내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신병의 원인과 병리:

고래로 정신병의 원인은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인상을 주어 왔다. 특히 19세기에 겪은 히스테리 현상, 최면술, 마술사의 괴변 및 행각 등이 신비성을 돋우었고, 또한 종교적 치유 활동 등의 전통이 고대에서 중세기로 내려오다가 불란서에서 시작한 정신병자에 대한 도덕적, 인간 대우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법이 성장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탄생에 이르렀다. 프로이트는 언젠가는 과학적 생물학적 근거로써 정신병을 진단, 치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현재 생물 분자학적 정신 병리를 찾는 과정은 아직 초기라고 보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지난날의 학설과 정신 병리를 재 검토하고 다루는 노력도 현저하다.

# 현대 정신의학의 개요 I

## -정신병의 개념의 변천과 이해

김 해 암(58, 대뉴욕)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는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 요소가 환경과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찬스(기폭)에 따라 발병하고 유전 요소의 강약에 따라 발병 혹은 잠재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넘어가자.

정신병의 분류:

대체로 정신병의 종류를 정신병, 신경병(노이로제), 성격 장애, 중독 장애, 충격 후유증, 발육 장애, 적응성 장애, 대인 관계, 및 성생활과 습관 장애 등으로 대별할 수 있었는데, 정신 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원인에 의존하는 분류법을 지양하고, 병적 증상과 양상을 임상적 관찰력으로 판단하는 분류법을 써오다 보니 개정판이 3판에서 5판으로 변천해 왔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대적 상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어떻게 정신의학을 이해하며 치료에 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자.

병의 발생 과정과 진행에서의 문제:

여기서 크게 문제제되는 것이 병의 발생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기전으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도 수수께끼 같은 아리송한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경 생리학의 발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잘 관찰해 보면, 역시 perfect storm의 경우같이 모든 조건이 맞으면 발병하는데 병의 경중 등을 외적 또는 내적 스트레스 등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유전으로 발생하는 저능, 방사선이나 오염으로, 또는 소아마비같이 태아의 병으로 오는 장애들 외에도 특수한 유전병들이 있다. 그런데 근대에 정신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정직한 대답이라고 본다.

나의 경력과 임상경험:

나는 의대 4년생 때에 정신과 교실에 나가 한 주일에 한번 숙박하면서 인슐린 쇼크 치료를 담당하고 일반 병실의 정신과 응급 진료도 했기 때문에 뉴욕에 와서 방 새우며 온 꼴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정신과 수련을 시작한 1960년대 초에는 정신분석을 위주로 하는 개인 개업을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서 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고 유행이

서, 수련이 끝 날 3년 차 후반에는 오피스 개업의 이모저모를 저명 분석가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통례였다.

내가 정신분석 수련과 뉴욕 주 면허를 얻은 1960대 중반에는 치료 환자가 얼마든지 있었고 저명한 분석가를 맞으려면 1-2년 기다려야 하므로 기다리는 달수로 분석가의 명성을 가능하는 시기였다. 1960년 말에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의 과 정도 마치고 시외로 이사하였다. 소아 정신과 클리닉에서의 경험 등 종합병원에서의 25년간 경험을 가지고 은퇴하고 맨해튼에서 개업하였고 코넬 대학 의과 대학에서는 황문화 정신의학을 20여 년 강의하고 50여 년 부교수로 남아 있다.

이런 배경을 통하여 정신과의 여러 분야를 망라하다 보니 정신의학의 영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야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직면 한 코비드-19 팬데믹과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가정적 타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를 물어온다면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할까? 생각해 온 바 있다.

인류는 앞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본다. 팬데믹은 그런 충격을 받을 예비적인 준비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물질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고 통솔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원시 시대와 달리, 잘못하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모양새가 충분히 도출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장애의 논란으로 잘 경험했듯이, 환자의 면접도 없이, 병명을 가져다 부치고 환자 취급했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었다. 환자 아닌 사람을 진단하고 환자 취급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오진이고, 신용을 잃게 하는 바 삼가야 한다.

정신의학의 영역:

정신의학이 적용되는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미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점점 다양해지는 음식, 음료, 약 제품, 중독성 물질의 다양화 등으로 통제가 어렵게 되고, 의존성, 중독 등이 병이 되고, 배움에서도 기본만 배우면 되던 사회가 일생 동안 공부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고, 지구 오염으로 오는 온갖 질병은 늘어만 가고, 이로

인한 정신병, 치매, 우울증이 증가하며, 어린이들에게 어려워져만 가는 학습 행위에도 장애가 따르고 있다.

과거 50년 동안 정신의학은 점차로 진단 명단을 늘려 가서 지금은 수 백가지로 나누고 있으니, 병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한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작업을 해 온 것은 과학이라는 방법론에 따른 것이라 보고 좀더 과학이 발전하여 정신병의 원인을 규명하여 분류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나, 현재까지는 병의 양상 또는 증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다.

크게 정신병은 3가지로 망라할 수 있다. 정신질환, 신경과 기분 장애, 그리고 성격 장애이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많고 어려운 병을 들어 본다면, 조현증(정신 분열병), 양극성 기분장애, 중독, 약물 의존 및 중독 장애, 인격 장애로서는 강박 집념 장애, 정신병 질적 성격 장애는 반사회적 성격증 (Psychopathy, Sociopathy)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증후군 안에는 수십 가지로 세분화된다. 일반이 이런 지식을 알 필요는 없고, 다만 분류하는데 이견이 많다고 알아 둘 일이다.

정신 질환의 치료 방법:

치료 면에서는 약물치료와 정신 심리 치료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예방과 방역 치료 방법인데 약을 최소량으로 하면서 최대한의 예방 내지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나의 한 환자는 단 한 가지 약으로 50여 년 양극성 기분 장애를 예방 및 치료에 성공해 오고 있다. 약은 신경안정제, 발병 치료제, 항울제 및 항불안제로 구별한다. 각 작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의 생약 치료제가 범람하고 있어 투약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물리적 치료 방법으로 전기 치료, 뇌 중추 자극 치료, 심부 자기 치료, 인슐린 속 치료 등이 있으나, 현재로는 대개 지난날의 방법으로 돌리고 별로 쓰지 않는다.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던 시절이 지속되어 왔지만 마음의 병이 감정의 조절, 내지는 안정시키므로써 치료되는 것이 아님은 상식으로 아는 바이다.

정신의학에는 아직 병에 대한 정확한 증명된 학설이나 정확하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치료 방법이 서 있지 않으므로 내가 여기서 밝혀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을 통한 이론과 실재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나의 임상 경험:

정신분석 과정을 수료 한 후에 처음으로 일한 곳이 청소년 치료 병원(사립)으로 뉴욕 맨해튼의 동부 지구인 부유층 주택지에 고급 호텔 같은 시설로, 환자는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었으며 치료는 정신 치료를 매일, 주 4-5회 하는 것이 중심적인 치료로 삼고 약물치료와 특수 교육, 보충 교육, 직업 교육 등 다채로운 컬리큘럼을 겸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부유층 청소년을 2년간 치료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다. 여기서 분석적 치료가 대부분의 분열증 환자에게 도움은 되지만, 치유는 안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롱아일랜드의 소아정신건강 센터에서 메디컬 디렉터로 있다가 CMHC로 자리를 옮긴 후 새로 종합병원에 세워진 정신과 병동과 소아 청소년 클리닉 소장으로 25년을 봉사하고 은퇴했다. 그 25년간 단기 입원 환자, 응급실 정신과 환자를 다루다 보니 거의 모든 종류의 정신 질환을 다룬 셈이 되었다. 공립 사립학교 정신과 문제, 즉 습득 장애, 폭행, 자살 시도, 패싸움, 인종차별 등의 문제도 다루었고, 개인 개업은 맨해튼과 교외 오피스에서 계속하여 왔다.

이런 배경을 밝히는 이유는 나의 다양한 경험이 독자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후배들에게도 미국의 정신의학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을 기대함에서 비롯 한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 시계탑 원고에 대한 안내의 말씀

우리의 시계탑에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내용은 지부소식, 수필, 산문, 기행문, 독후감, 시, 사진작품,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자랑, 경험담,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 등 모두 환영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인 사항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고는 길이가 1면을 넘지 않는 분량입니다. 만일에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돌려보내거나 편집회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우리 동창회 website로 보내질 것입니다. 특히 사진은 꼭 필요한 몇 장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년 역사를 가진 시계탑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원 여러분들의 눈이요 귀요 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보물입니다. 이 귀중한 시계탑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안내말씀을 따라 주시면 편집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 학년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 \* 원고는 email로 혹은 육필의 경우는
- \*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 Seok Seo, M.D.  
15727 Rothschild Court, Haymarket, VA 20169  
Tel: 419-234-4154  
E-mail: younseokseo2004@gmail.com / snucmma@yahoo.com



# 2020-21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안우성 49대 회기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949 고영철
- 1954 김갑균 이동식
- 1956 김신형 김윤태 박상기 서상철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윤범 김해암 김학륜 배영섭 신상규 유영호 이만택 이상설 이종용 이운순 이종국 이희성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용덕 나길진 반응균 방덕환 방석운 서경화 임낙중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최홍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고재경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오신중 염극용 이광준 이경화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한성수
- 1961 강창욱 곽동린 고의걸 김영철 김예흠 김유홍 김화섭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박호성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상일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희백 이철희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조은순 진창건 차철준 최광창 최성덕 최지원 최용성 최태순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 1962 고홍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남성희 박종건 박종승 박진수 박찬형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복 이석우 이영웅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조 김갑중 김계윤 김승태 김정일 김재종 김주승 김택수 김태웅 김태형 김현학 김현철 김충열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진수 윤영섭 윤영옥 이능석 이병준 이승현 이재명 임춘수 장세곤 장인호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한광수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유창남 윤희기 이정은 이종우 이재품 이정필 이종성 이홍표 임병훈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김길중 김덕진 김옥현 박수안 백길영 신백효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희 이재진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재은 홍수웅 황규정
- 1966 김우신 김진수 김용재 김은한 김진수 김충규 이명희 이성근 이영은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조규웅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영철 문경웅 박정일 우준균 유 달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준식 이영균 이태안 지일성 최무용 최승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진홍 김주평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안금환 안세현 이건일 유우영 이상훈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윤효윤 육순재 이용환 이충호 이치훈 임안무 임우규 천양국 최종일 최홍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박홍식 방준재 오석일 송요준 오석일 이명상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 훈 김효순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이성길 이종일 이원택 조세진 장 철 정인용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장혜숙 정균희 정진우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이계석 임준형
- 1974 권철수 구재훈 김용진 임자은 최대식
- 1975 김원정 김자억 박인영 전경배 조철영
- 1976 김정아 안우성 유영결 한승신
- 1977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80 박남훈
- 1982 차민영
- 1985 김자성 박정미
- 1991 홍정연
- 1999 이도은 이재용 한효숙
- 2001 김민정 김태곤
- 2003 조수정
- 1979 이승호
- 1981 남명호
- 1984 구철희 서귀숙 정희국
- 1989 이선규
- 1995 권준혁
- 2000 박은경
- 2002 최태웅
- 2008 박종한 이익재

—은 2회 이상 납부하신 동문

## 37th CONVENTION DONATION

- 임종식(57)1,000 김윤범(58) 100 이종석(60) 250 강창욱(61) 100 황현상(61) 75
- 정정수(62) 300 이재품(64) 20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500 장한교(66) 100
- 이건일(68) 200 윤효윤(69) 100 김창구(71) 100 배성호(71) 300 조세진(71) 75
- 나두섭(73) 200 김용진(74) 100 김정아(76) 800 안우성(76)10,000 한승신(76) 800
- 이선규(89) 100 서울메디칼(차민영 82) 10,000

## GREEN PROJECT FUND

- 권기홍(60) 500 이종석(60) 150 진창건(61) 75 박종승(62) 100 정정수(62) 175
- 이홍표(64) 100 신백효(65) 75 차재철(68) 100 이성길(71) 200 오용호(72) 300
- 서인석(73) 100 김원정(75) 1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700 유영결(76) 150
- 한승신(76) 700 박남훈(80) 150 남명호(81) 500 서귀숙(84) 100 이선규(89) 100
- 홍정연(91) 100 이도은(99) 100 한효숙(99) 100 박은경(00) 100 김태곤(01) 100
- 최태웅(02) 100 조수정(03) 100

## CHARITY FUND

- 최창송(58) 500 권기홍(60) 500 황현상(61) 100 김현철(63) 75 라찬국(64) 100
- 신두식(64) 100 홍선경(99) 100 채도경(99) 100 최영자(66) 200 강명식(67) 175
-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하준영(71) 75 문대욱(73) 500 민인기(73) 100
- 김용진(74) 100 김정아(76) 150 한승신(76) 150

## SCHOLARSHIP FUND

- 김윤범(58) 100 김학륜(58) 100 최종진(59) 150 권기홍(60) 500 이종석(60) 50
- 임필순(60) 200 한수웅(61) 100 황현상(61) 200 이기범(62) 375 김현학(63) 150
- 김재종(63) 200 한기현(63) 275 한광수(63) 300 이재품(64) 200 안연승(64) 300
- 이홍표(64) 125 김길중(65) 500 이영균(67) 100 김주평(68) 75 차재철(68) 100
- 장현식(70) 100 오석일(70) 25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200 서정자(71) 350
- 장 철(71) 75 정균희(72) 875 김용진(74) 100 김자억(75) 500 김정아(76) 100
- 한승신(76) 100 한효숙(99) 75 이도은(99) 50
- 김태웅(63) 장학금 10,000 정병욱 Fund 10,000
- 김정화(Mrs. 이상설 58) 5,000 최문숙(Mrs. 정일환 63) 5,000

## GENERAL DONATION

- 김갑균(54) 50 노용면(55) 100 김신형(56) 200 서상철(56) 75 임종원(57) 75
- 김석희(58) 200 신상규(58) 100 유영호(58) 200 이희성(58) 75 강상진(59) 250
- 서경화(59) 50 한성업(59) 100 최종진(59) 125 최혜숙(59) 125 권기홍(60) 500
- 박명근(60) 50 이경화(60) 75 이상일(60)1,000 이종석(60) 100 임종원(60) 50
- 한성수(60) 75 강창욱(61) 100 손기용(61) 200 이철희(61) 75 장성환(61) 100
- 최용성(61) 125 최지원(61) 50 황현상(61) 175 박종승(62) 250 김계윤(63) 75
- 김태웅(63)1,000 권영조(63)1,200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임춘수(63) 200
- 장인호(63) 75 조열하(63) 125 조한원(63) 75 권정덕(64) 100 김태환(64) 200
- 양운택(64) 100 이재품(64) 50 이홍표(64) 50 최영인(65) 100 채무원(65) 250 김진수(66) 100
- 정길화(65) 100 이한승(65) 50 최영인(65) 100 채무원(65) 250 김영남(68) 100 이건일(68) 175
- 정량수(66) 75 김성철(67) 75 이소희(67) 25 김영남(68) 100 안금환(68) 75 김희주(68) 100
- 이상훈(68) 175 차재철(68) 175 홍광신(68) 100 안금환(68) 75 김희주(68) 100
- 김중권(69) 200 박수웅(69) 375 송용재(69) 200 이용환(69) 100 김형달(70) 100
- 오석일(70) 150 김성환(71) 500 김창구(71) 100 서정자(71) 50 오동환(71) 200
- 오용호(72) 20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100
- 한승신(76) 100 김동훈(77) 200 서귀숙(84) 100 김자성(85) 125 박정미(85) 100
- 이도은(99) 100
- 김수진(Mrs. 김광서 47) 50 Mrs. 주창준(56) 200
- 고애자(Mrs. 이운순 58) 5,000 김정화(Mrs. 이상설 58) 5,500
- 신영주(Mrs. 신영철 59) 300 Mrs. 계훈택(61) 500
- John Lee(이별세 63 Son) 1,000

## AASCDTF DONATION

- 노용면(55) 125 최창송(58) 500 박찬형(62)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 남명호(81) 200

## 농담 골목

내가 뉴욕시 퀸즈 카운티 법의관실 책임자로 있을 때 있던 일이다. 중국 사람 의사인 우리 직원이 사무실 뒷마당에서 길게 자라는 나뭇가지 하나를 보고 내게 말하기를 “이 나뭇가지를 잘라야 하겠습니까. 사람들도 자기 주위 직원들 보다 빨리 자라면 잘립니다.” 라고 했다. (노용면)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 곁에 서 있는 젊은이에게 물었더니 그가 'No English'라고 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 속에 아이 둘이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English or French?'라고 물었더니 'Jewish'라고 대답했다. (노용면)

COVID-19 pandemic으로 집콕생활이 장기화 되다 보니 부부기간 혹은 부자기간의 대화가 그리 순조롭지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가슴이 아주 작은 아내가 브래지어를 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다. “가슴이 작는데 뭐 브래지어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대꾸했다. “내가 언제 당신 팬티 입는 거 보고 뭐라고 합디까?”

2.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자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응?” “응, 있었어.” “정말? 사랑했어?” “응, 뜨겁게 사랑했어.” “뽀뽀도 해 봤어?” “해봤지.”

아내는 드디어 열이 받쳤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열이 오른 아내가 소리를 뺏 지르며 말했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응?” 그러자 남편 왈...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했잖아.” 순간 상기되었던 아내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3. 아들이 매시간 온 라인 수업을 하는 대신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에브럼 링컨이 네 나이였을 때 뭘 했는지 아니?” 아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다. “몰라요.” 그러자 아버지는 훈계하듯 말했다. “링컨은 부지런한 책벌레였어.”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다. “아, 그 사람 나도 알아요. 아버지 나이였을 땐 대통령이었잖아요”

4. 어머니: 우리 녀석 커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녀석 틀림없이 정치관에 뛰어들걸요. 어머니: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그 녀석 말하는 걸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알맹이도 없는 소리를 지껄이잖아. -(이덕승)